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 /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목돈자가 모으면 오른금리로 대출때는 마법금리로!
■교육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대출문의 080 023 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1월 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부처를 보게 된다.
〈금강경〉

법회 안내

정암사 (02)683-3993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참이기도 10일(음) 오후2시30분
중앙포교교회관 (02)523-024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합창단법회 매주 토 오후2시
남생법회 매주 첫째 화 오전8시
노문사 (02)928-3797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후2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6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연화어린이회 매주 일 오전10시
정토포교원 (02)737-0853
외국인법회 셋째 일 오전11시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거사림법회 매주 금 오후7시30분
대학생법회 매주 월 오후7시
광영 금강정사 (02)893-2700
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호법법회 첫째주 수 오전10시30분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중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연대선원 (0417)551-2010
일반법회 1 · 15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법회 매주 월 오후8시
양양 문수사 (0396)671-8889
일반신도법회 매월 18일 오전11시
청년법회 매월1 · 4주 일 오후7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전통 복장의식 현장을 가다 · 16면

구독료납부 온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각성 · 참회의 기회 삼기를"

조계종 '盧씨 비자금' 성명 정경유착 과감한 청산 촉구

재가단체 "관련자 처벌" 한 목소리

교계는 10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 국민사과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수순이라며, 이 사태를 계기로 정치지도자를 비롯 각계 지도자들이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청정함을 갖추는 각성과 참회의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며 "어떤 심판 처벌도 감수하며 속죄의 길이라면 무슨 일이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가 노 전 대통령에 은둔처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항간의 관심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공직자와 기업인들은 비자금 관련 실상을 국민 앞에 남김이 밝히고 발로참회, 그 자금은 국가에 헌납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낭독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실 은둔을 원할 경우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사찰로 오겠다는 말이 아직 없었고 그것은 그때가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답해, 불교가 노 전 대통령에 은둔처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항간의 관심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또한 지난달 23일 민자당 김윤환대표의 '나항→불도에 정진' 발언과 관련한 종단과의 사전 조율 등문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모 종교단체에서 노태우 전대통령에 헌납한 비자금이 땅투기등에 ○용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조계종과의 관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답했다.

한편 한국재가불자연합 전국불교운동연합 불교시민단체협의회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인권위등 교계단체들도 지난달 25일 성명을 통해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관한 진상을 끝까지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경숙 기자〉



1400년만에 빛본 '백제 돌 사리감'

충남 부여군 능산리 절터 유적지에서 567년 백제 昌王의 여동생인 공주가 만든 사리감이 이시이 최초로 발굴, 세계 학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로 세로 각 50㎝높이 74㎝크기의 화강석으로 된 사리감은 한국고대사 연구의 획기적인 자료가 될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 사리감과 함께 유으로 조성된 불상과 불두, 금속제 장신구 등 5백96점이 발굴됐다.
〈관련기사 13면〉

사찰등급제 실시령 조계종, 의결 공포

조계종은 지난달 26일, 9월 20일 입법예고한 사찰등급제 실시령을 의결 · 공포하고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개정안과 관람료 사찰 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조계종은 내년 1월 30일까지 실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찰 등급책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목어

"회사를 살려보려고 여섯형제의 집까지 경매에 부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정말이지 착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들지를 않는 것인지 내가 바보였는지…." 41억원의 부도를 내고 도피하다 자기집을 팔아 직원 55명의 퇴직금을 정리하고 자살한 중소기업 사장 최윤식씨의 유서에는 양심이 살아있다.

비자금 파문으로 나라안을 벌집쑤셔놓듯한 노태우 전대통령은 한 시민의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무얼 느낄 수 있을까. 한번 묻고싶다. 자금도 '보통사람' '밀어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어느 불자는 이렇게 말했다.

"매월 1백만원씩 저축해서 3백억원을 모으려면 2천5백년이 걸립니다. 돈을 모으기보다 차라리 성불이 쉽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 3백억원이 4백85억원으로 늘어나고 다시 1천7백억원이라고 하니…, 국민은 이제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일간지들은 연일 10면이상의 지면을 할애하여 노씨의 '쓰다 남았다'는 비자금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나라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역사를 오욕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사람에게 과거의 지위따위가 배려되어서는 안된다." "대 국민사과, 국가헌납, 낙향 시나리오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발상이다." "노씨는 지금 국민 가슴속에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을 몇개씩 붕괴시키고있다." "노씨는 회개 · 참회하라."

노씨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사법처리후 죄상이 밝혀지는 대로 구속처벌하라'(57.4%)는 성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 그리고 10월20일까지 '오리발'을 내민 노씨에게 초기경전 〈자타카〉의 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다.

"권력을 한손에 쥐고 백성에게 재난과 손해를 끼친 왕은 도적과 다를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악업에서 벗어나는 길도 일러 주셨다. "자책하고 참회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능히 근본업을 뽑아버릴 수 있다. 그러나 악업을 숨기고 뉘우치지 않으면 죄는 밤낮으로 늘어간다."

"차라리 성불이 쉽겠어요"

방장스님 친견법회


◇ 혜암스님


◇ 승찬스님


◇ 원담스님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님들께 보답하고자 한국불교 4대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5일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통도사 방장) 친견법회를 성황리에 가진 것을 시작으로 해인사 수덕사 송광사의 4대총림 방장스님을 친견하는 귀한 법회에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차 11월 4일(토) : 덕숭총림 수덕사 원담 방장스님
3차 11월 18일(토) : 조계총림 송광사 승찬 방장스님
4차 11월 25일(토) : 해인총림 해인사 혜암 방장스님

※ 문 의 : 수미산여행사 국내부 (전화 : 732-0181~3)
(각 회차별 참가비 2만원)

※ 사과드립니다 당초 10월 28일 예정됐던 해인사 혜암방장스님 친견법회가 스님의 사정으로 부득이 11월 2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행사에 차질을 빚어 신청하신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행이야기를 찾습니다

11월25일 마감 … 원고지 30매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이야기들을 불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행수기 공모는 이웃과 함께 피안의 길을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실리게 되는 신행담 공모에 적극 동참바랍니다.

■ 신행수기 공모 안내

△ 공모내용 : 생활속 수행이야기 · 부처님 가르침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등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접수마감 : 95년 11월 25일
△ 접 수 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 화 : 722-4162 팩스 : 737-0698
△ 참가대상 : 불자면 누구나 동참 가능
△ 당선작발표 : 현대불교 96년 신년호 지면 당선작은 본지에 연재
△ 시상내용
· 유마상 :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메달)
· 종단협의회장상 :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메달)
· 본사 사장상 : 상장, 상금
· 특별상 : 상장, 상품
· 응모자전원 : 기념품 증정

미래에 도전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효성중공업
發進, 21世紀
고객제일주의 정신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성중공업 —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효성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중전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변압기, 차단기, 전장품, 계전기, 용접기, 철탑설비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차설비, 환경보전설비, 화학장치, 삭도설비

FA사업부문
최첨단 MECHATRONICS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 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 계장설비, UPS, PLC등 전력전자, 물류 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호제어 SYSTEM

건설사업부문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오피스빌딩 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 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준설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

사 설

예산타령에 문화재 훼손위기

문화민족의 역사는 그들의 문화유산이 증명해준다. 아무리 훌륭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전통 문화와 문화재를 보존하지 못하면 문화민족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우리 한민족은 5천년의 역사 문화를 자랑하며 국민소득 만불 수준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음을 자부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숨쉬고 있는 한민족의 문화유산은 세계 어느 민족에도 뒤질 수 없으며, 특히 석굴암과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이제 국제적인 문화재로 인정받아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민족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국보 32호)을 봉안한 장경각 지붕에 빗물이 새어들어 훼손될 위기에 있으며 그 지붕에 비닐을 뒤집어 씌우고 끝에는 양동이까지 매달아 추한 꼴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해인사는 가야산 국립공원이나 세계적인 귀중한 문화재의 보존 상태를 본 외국인은 과연 문화민족의 정신이 살아 있고 선진국에 발돋움하는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보겠는가. 참으로 부끄럽기에 앞서 아연실색 할 지경이다.

최근 사건만해도 민족정신의 얼이 서려 있는 서울 탑골공원의 원각사탑(국보 제2호)과 원각사 사적비(보물 제3호)와 경주 나원리 5층석탑(국보 제39호)등 훼손되고 방치된 문화재가 수두룩하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재 방치에 대한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언론 매체에서도 만만찮게 거론되고 있지만 그 보존에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은 심각성에 대해 무지한 채 들은 척도 않고 있다니 문민정부의 정신 상태를 알만하다.

해인사 장경각에 비가 새게된 것은 이미 지난 8~9월부터이며 해인사에서 군 공보실과 문화재 관리국에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관리국측은 임시 응급조치만 하고 예산 관계로 97년에나 재원을 마련해 전면 보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96년에 내리는 비는 어떻게 감당하며 97년예산도 짜여바야 알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하면서 훼손되어 가는 문화재를 이대로 방치만 할 것인지 정부 당국자의 문화적 수준이 참으로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러한 문화재보존에 대한 무대책이 자칫 종교적인 관점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훼손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들이 불교 성보들인지라 일선에서 행정관리를 맡은 책임있는 관리들이 종교적인 시각에서 나태나 몰지각함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적지않게 우려되는 바이다.

정부와 행정당국은 조속히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존 대책을 강구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보종찰의 관리 책임자인 해인사도 상황을 미리 진단하여 사찰의 힘이 모자라면 종단이나 교계의 힘을 합쳐서라도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했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다.

문화재는 민족의 생명이요 얼굴이다. 행정당국은 민족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조상의 얼을 팽개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기를 간절히 당부하는 바이다.

열 린 마 당

재적 사찰

조계종이 개혁불사의 일환으로 재적사찰 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신도법을 근간으로 신도회구성, 사찰운영위원회 결성 등 새로운 한국불교의 토대를 세우겠다는 종단의 의지다. 신행형태의 혁명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이 운동에 대해 불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찬성 조 호 정 〈삼보법회 회장〉

'무조직이 조직' 새로운 신행의 걸림돌
체계적 교리공부·사찰공개운영 초석



현재 불교신도는 모래알같은 조직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긴밀한 조직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도 낮은 상태다. '무조직이 조직'이라는 불교조직의 실상은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자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2천만 불자라고 운운하는 현실과는 달리 통계청이 지난 해 발표한 94년 사회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교인구는 약 8백2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우기 매주 신앙생활하는 인구는 약 4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재적사찰갖기라고 본다. 재적사찰갖기운동은 새로운 신행의 형태임에 틀림없다. 불자라면 누구나 하나의 재적사찰을 정해 신도등록을 하고 재적사찰을 신행의 근본도량으로 삼아 활동을 해야 한다. 이는 재가불자로서는 지속적인 수행의 근본도량을 갖는 것이며 사찰의 입장에서는 사찰을 외호하는 신도기반을 다지는것이고, 범 종단적으로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한국불교 역사상 대변혁을 가져올수 있는 불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에는 특정한 사찰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현재의 신행형태의 극복이 요구된다. 현재의 신행형태가 유지되는 것은 불자가 아직도 기복불교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복만을 빌 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거나 실천하려는 생각이 부족한것이 오늘의 불자 모습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자신의 원찰을 정해 정기적인 신행활동을 하고 그 신도조직의 일원으로 사회에 회향하는 새로운 신행운동에 모두 동참해야 하겠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모든 조계종 신도로 하여금 신도등록을 하고 재적사찰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코자 한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축원카드만을 통해서 신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능률적인 신도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결과는 신도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교무금을 납부하므로 대단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가 확립되기만 한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시행을 부정하거나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직 염려되는 것은 과연 이같은 대변혁에 가까운 제도가 단시일내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더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스님들의 이동이나 소재가 행정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행정력으로서 소위 1천만을 운운하는 불교도의 신상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신도의 이동 또는 사망뿐만아니라 한번 등록하고 다음해에 등록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등의 누락과 이탈 이러한 제반문제의 관리가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또 다른 근원적 문제로서는 불교신행이 반드시 사원에 소속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대다수의 불교도들은 일정한 소속사찰이 없었고 그것이 신행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점에서는 불교의 장점이자 특징이기도 하다.

그동안 신도가 되는 어떤 절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수계조차 하지 않은 많은 신도가 있으며 스스로가 나는 불교도라 하고 생각하면 불교신도가 된다. 그러므로 신도가 신도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은 신도는 그냥 신도이지 종단내에서 어떤 권리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려 권 기 종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구속받지 않는 신행 타종교비해 장점
효율적 신도관리…단시일 변화 어려워



현대만평

박 구 원



습기문제라면 우선 이것으로…

시 론

정신적 중산층과 개혁

—노씨의 '검은돈' 파동을 보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검은 돈을 두고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모든 언론매체는 흥분한 어조로 이 문제를 보도하고 비자금의 화제로 날이 지샌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자리는 도덕성과 헌신성을 상징하는 '통치권'의 자리이기는 커녕 권력형 부정부패가 집중된 정점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국민의 비웃음과 분노가 또다시 폭발한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에대해 정치적 절충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는 관측이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모두 잊을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동정론자도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의 심성이라고 해야할 것인가? 독재자에게 돌을 던지다가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독재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 않은가. 신중하지 않은 여론은 참으로 이 나라를 갈팡질팡하게까지 한다. 그래서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것이 모든 사회 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김 도 종
〈원광대 철학과 교수〉

예컨데 이번 무라야마 일본 총리의 망언에 대해 우리나라의 언론이 너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일본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 일본신문의 특파원인 그는 한국 사람들이 두 주일만 지나면 이내 무라야마 망언에 대해 잊고 말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흥분할 줄만 알았지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고 매듭을 풀어 단단한 초석으로 다지는 사람이나 계층이 없다. 그처럼 심지가 굳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돈에 팔리는 사람이 되는지도 모른다.

통치권 물욕채우기 급급

대통령들 뿐만 아니라 작은 지역의회에 나서는 사람들, 각종 단체장에 나서는 사람들 까지도 한결같은 돈타령이다. 점잖은 표현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지만 그 용도는 결국 돈으로 사람을 사자는 것 아닌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돈에 팔리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초등학교 반장선거까지도 과자 한개 더 사준 사람이 당선된다고 하니 이 사회에서 돈에 팔리는 마음이 얼마나 많겠는가.

전직 대통령의 검은 돈에 대해서는 책임가진 기관이 철저하게 밝혀내어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실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고 말이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다. 흥분하다가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가늠하고 있어야 한다.

흔히 중산층이 잘 형성되어야만 그 나라가 발전한다고 한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중류계층이 튼튼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신적 중류계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건실한 국민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론에 편승하는 지식인

언론매체의 상업주의나 선정보도에 휩싸이고, 이념의 극단주의자가 내세우는 양자택일의 논리에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 국민대중들의 정신적 상태라고나 할까? 그것은 각자가 제 눈으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에 마음을 팔고 애국자가 되며, 일시적 여론에 편승하여 진보적 지식인이 되는 현실이 있게 되는 것이다.

정신의 중산층, 여론을 뒷받침하는 계층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 원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돈과 권력을 향해 허겁지겁 뛰어다니는 출세주의자들만 관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면 누가 정신의 중산층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일차적으로 종교를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느 종교가 되었든지 진실한 신앙인들이 나라의 여론중심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종교인들 마저 집단이기주의나 정통성 시비에 싸여 제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다. 종교 자체가 상업주의에 빠진 것이 더 슬픈 일인 것이다.

더 이상 수치스러운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 정신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신개혁은 종교개혁에서 부터 시작되고, 종교개혁은 거대종교인 불교로 부터 시작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알아야 한다. 종교가 종파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져 있는 동안 국민정신은 황폐해지고 수 많은 정치가들이 검은 돈을 쓰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돈에 몸을 파는 일을 더럽다고 욕하면서 돈에 마음을 파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말이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보는 모든 신앙인, 특히 불자들이 보다 신선한 정신개혁을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경 축

대한불교 선교종 창종3주년 기념 및 제2세 종정예하 추대 대법회

진리의 정각자이시고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와 본질이 연기관계에 있음을 자각하시고 더불어 사는 삶 즉 화합만이 모든 인류가 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똑바로 실천궁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법연의 인연으로 대한불교 선교종이 고고의 뜻을 드높이 받들어 창종을 한 지 어언간 3년이 되었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600여 년, 부처님의 자비의 법종자가 우리 나라에 전해진 후 신라 이차돈 선사 순교를 시작으로 발전과 번영을 이룩한 삼국 시대의 그 찬란한 민족문화의 지주였으며 통일신라에 와서 그 꽃을 피워낸 천년의 불교문화, 그 불교문화는 곧 민족사상의 뿌리이며 한민족 문화의 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고려에 와서 불교 역사의 일대 전환기를 맞아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인연으로 태고 보우국사의 오교구산을 통폐합하여 구산원융 오교총통에 힘을 다하였으며 원융사상의 정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전개 과정을 고찰할 때 향후 대한불교 선교종의 역할은 첫째, 보우국사의 원융정책과 이념을 꽃피우고 선과 교의 겸수를 본종에 토착하여 대한불교 선교종 중흥을 위한 일에 매진하여 부처님의 뜻에 따라 불교중흥의 기적을 이룰 것이며 원효대사의 화쟁정신과 만해선사의 유신이념을 더욱더 공고히 바로 받들어 실천궁행하는 종단이 되겠습니다.

둘째, 새롭게 거듭 태어난 대한불교 선교종은 부처님 자비정신을 이어 받아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의 이념 구현을 실천궁행하는 자세로서 오늘날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하여 불심과 대원으로 등촉이 되겠습니다.

셋째, 대한불교 선교종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현대와 미래의 조화로운 모습으로 창조될 것이며 사회대중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종단이 되겠습니다.

넷째, 종도 대중은 힘차고 결집된 대한불교 선교종의 기반을 영속하게 하며 다시 한번 더욱 공고히 하고 혜일의 광명을 상방하여 세도의 암흑을 밝혀주어야 할 신념으로 삼는 종단이 되겠습니다.

삼가 불조의 가호 밑에 우리 대한불교 선교종은 창종 3주년 및 제2세 종정예하 추대식을 맞이하여 선교종 법손의 영원한 번영을 비는 바입니다.

※대한불교 선교종은 종지 종풍에 뜻을 같이 하고자 하시는 스님들을 위해 항상 교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종단 등록에 문의하실 분들은 아래 총무원으로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 조직표

종 정 •••• 동 호
사서실장 •••• 도 찬
승정원 원장 •••• 근 봉
승정원 위원 ••••
청운, 임호, 효광, 대운, 소덕, 영봉, 대연, 경담, 기담, 혜운, 국담
종승위원회 위원장•••• 동 곡
종승 위원••••
국담, 임호, 청운, 기담, 혜정, 혜명, 정화, 춘응, 법혜, 용화, 대광, 경호, 진응, 운광
중앙종의회 의장•••• 혜 응
부 의 장 보운, 법준
사정원 원장 •••• 혜 봉
부 원 장 혜 성
고시위원회 위원장 •••• 동 광
선교종 종승 연구원장•• 국 담
법규위원회 위원장 •••• 법 봉
중앙 포교원장 •••• 경 담
중앙 연수원장 •••• 법 진
호계위원회 위원장 ••••월 봉
불교전통문화예술 원장••법 륜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청 운
국제 포교위원장 •••• 일 여
총무원 원장 •••• 혜 종
부 원 장 법 륜
총무부장 혜 진
교무부장 도 현
재무부장 도 인
사회부장 도 암
사정부장 회 근
포교부장 경 보
종무 위원 ••••
연구, 해월, 현철, 혜등, 혜원, 혜륜, 성도, 화진, 보조, 법진



(종정 동 호 큰스님)

종정추대 위원

혜종, 혜응, 혜봉, 동곡, 혜명, 근봉, 동광, 보운, 혜등, 혜정, 일여, 혜덕, 보관, 정화, 법혜, 혜진, 법준, 법봉, 도현, 혜륜, 대운, 해월, 현철, 선도화, 경보, 혜원, 혜성, 법륜, 국담, 월봉, 소운, 회근, 임호, 성재, 도인, 연구, 연관, 운광, 효광, 도명, 도암, 현하, 진허 외 종도 일동

■ 일시 : 불기 2539년 11월 9일(음 9월 17일) 오전 11시 ■ 장소 : 중구 영주동 코모도 호텔 충무홀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 : 부산 광역시 동구 수정2동 159-1 일신빌딩 1층 / 전화 : (051) 462-6181, 462-6652 / 팩스 : (051) 441-4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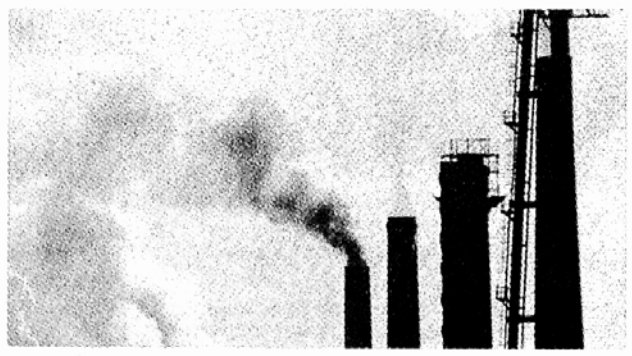
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장 류 혜 종 합장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㉚

대기오염

생태계 위협·인접국까지 피해 줘

멕시코시티 가장 심각…매년 10만여명 사망
서울 2위…중국 황사현상 한국에 영향 미쳐



◇공기는 사람이 마시지 않으면 살수 없을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공장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해 대기가 오염되면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부처님께서는 세기경(世紀經)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일찍이 한 때에 바람의 요소의 대신(大神)이 있어 나쁜 견해를 내어 생각하여 말했다. '바람의 요소안에는 땅, 물, 불이 없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그 신이 있는 곳에 나아가 말했다. 대신이여, 그대가 마음에 참으로 '바람의 요소안에는 땅, 물, 불이 없다'라는 나쁜 견해를 품었는가? 그가 나에게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대신이여, 그대는 이제 그와같은 나쁜 견해를 일으키지 말라. 왜냐하면, 이 바람의 요소안에는 실제로 땅, 물, 불이 수반하고 있으며, 다만 그 가운데 바람의 요소가 더욱 많을 뿐이다. 그러한 인연으로 바람의 요소라고 불리울 뿐이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그 바람 요소의 대신(大神)이 그와같은 생각을 낸 줄 알고 그 나쁜 견해를 끊어서 기쁨이 생기게 했다."

바람의 생태계는 모든 생태계처럼 모든 다른 생태계를 그 가운데 함축하고 있고 수반하고 있다. 그래서 대기가 오염되면 대기오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바람의 대신(大神)의 잘못된 견해를 고쳐주고 바람의 생태계를 기쁘게 했다.

그러나 인간은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의 대량사용으로 대기가 오염되고, 그것이 전 지구적 땅, 물, 불, 바람의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불과 이십여년도 채 되지 못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멕시코시티는 원래 평지보다 30%나 산소가 부족한 해발 2200m의 고지대인 분지에 자리잡고 있는 데다가, 7천대 이상의 디젤버스를 포함 3백만대 이상의 차량과 멕시코 공장의 50%인 13만개의 공장에서 뿜어내는 오염물질과 1천7백만 인구의 생활 에너지의 소비로 인해 엄청난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멕시코시티에 서울의 대기오염은 멕시코시티의 절반정도로 담배를 피지않는 사람도 하루 담배 한 갑의 흡연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가 있다. 이것은 세계 제 2위의 대기오염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980년 이래 저유황공급대책이나 청서는 매년 대기오염관련 사망자가 10만명을 넘고 시민들은 매일 담배 2갑을 피우는 것과 같은 흡연효과의 오염된 대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

84년 손동헌교수팀에 의해 조사된 바에 의하면 서울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 형성되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 하나만의 농도로 볼 때, 정연료 사용의 의무화·지역난방시스템의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의 강화와 같은 환경보전정책에 따라 대기오염도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연료소비량의 증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실제적인 대기오염의 감소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대기오염은 바람과 산성비에 의해 인근 지방이나 인접국가로 전이된다. 우리나라에 매년 봄이면 불어닥치는 황사현상은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자연적인 대기오염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좋은 실례이다. 최근에 중공의 개발붐을 타고 배출되는 대기오염과 그로 인한 산성비는 우리나라 전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날이 머지 않았다.

특히 대기오염은 수분과 만나 구름으로 오염될 경우에 산정상에 부딪쳐 그곳에 산성비를 뿌림으로 심산유곡과 산정상에 이르기까지 불모화할 가능성이 많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에 의한 산성비는 지하 생태계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 행 캠 페 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합장은 부처님 살아계실 때부터 행해져 왔다. 가장 먼저 성립된 경전인 〈아함경〉 곳곳에 "합장한 채 이렇게 여쭈었다"란 표현이 나타난다.

스님에게는 물론 모르는 사람과도 첫 인사를 나눌 때면 반드시 합장으로 인사하는 허보리수보살은 "화엄경에 나오는 '자타일시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란 구절이 마음에 들어, 인사를 나누면서 '성불하세요'라고 발원한다"고 말했다.

〈잡아함경〉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나온다.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녹야원에 계셨다. 부처님은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서 걸식하다가, 어떤 비구가 방만한 마음과 흐트러진 자세로 걸식하고 있었다. 그 비구가 멀리서 부처님을 뵙고는 곧 단정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부처님은 걸식을 마치고 녹야원에 돌아와 이렇게 물었다.

금주의 주제 **합장인사**

"오늘 아침에 어떤 비구는 방만한 마음과 흐트러진 자세로 걸식하다가 나를 보더니 곧 몸과 마음을 바로 하고 비구답게 행동하였다.

상대방 향한 믿음·존경의 표시

몸과 마음 바로잡는 신행의 첫걸음

누구인가?"

그러자 한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한 뒤 아뢰었다.

"예, 세존이시여, 바로 저이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잔뜩 움츠러들었던 그 비구에게 야단을 치시기는커녕 오히려 다음과 같이 칭찬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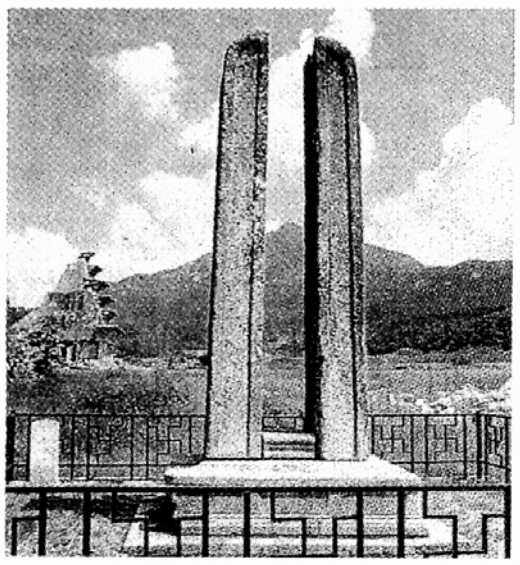
"착하도다, 비구여. 너는 나를 보고는 스스로 몸과 마음을 바로 할 수 있었구나. 비구여, 그것은 바른 법이니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구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고 또 비구니나 우바새 우바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곧 그 마음 속에 3보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을 바로 함에 익숙해지면 작게는 다른 이의 존경을 받게 되는 일로부터 크게는 열반을 얻게 되는 일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니라."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 앞에 모으고 허리숙여 예를 표하는 '합장'은 불교만의 독특한 인사법이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상대방에게 믿음과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니 합장 이상의 인사법이 없을 것이다.

신행수첩



◇익산에는 목탑양식의 미륵사지석탑 외에도 고도리 석불입상, 태봉사 삼존석불등 수많은 불교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사진은 보물 제236호 미륵사지당간지주.

미륵성지를 찾아서

터사랑 11~12일 국토순례

미륵사상의 발자취를 더듬어 고승들의 숨결과 역사의 향기를 느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기적으로 국토순례를 떠나는 터사랑(회장 전숙희)은 오는 11·12일 이틀간에 걸쳐 제19회 국토순례를 떠난다.

이번 순례는 '미륵성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김제 금산사, 익산 미륵사지, 논산 관촉사등을 둘러보게 된다.

신라 혜공왕 2년 진표율사가 미륵불의 수기를 받고 중창했다는 금산사는 무악산의 연봉이 사방으로 둘러싼 가운데 위치해 주변경관이 아름답다. 특히 미륵전, 당간지주, 석련대, 석종등 국보 문화재들이 수많은 단풍나무가 채색해 어우러지는 풍경은 일대장관이다.

순례단의 답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익산 미륵사지, 논산 관촉사·개태사로 이어진다. 이렇게 미륵성지를 답사하다보면 마음까지 숙연해져 세상사를 모두 잊게된다.

(02)725-1284

정혜결사 유명한 거조암

대승불자회 구도법회

대구분지의 북부를 병풍처럼 가리고 있는 팔공산에는 드높은 수많은 봉우리들과 함께 많은 사찰과 암자가 자리해 있다.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도도량 갓바위와 팔공산 동쪽기슭에 위치한 거조암도 그 중의 하나다.

조계사 대승불자회는 갓바위와 거조암을 찾아 11월 구도법회를 오는 18일 떠난다.

7세기경에 창건된 거조암은 고려 지눌이 송광사에 수선사를 세워 정혜결사를 이룩하기 위해 각 종파의 고승들을 맞아 몇해동안 정혜를 익혔던 사찰로 유명하다. 또한 거조암에는 국보 제14호로 지정된 영산전과 다수의 문화재가 전해오고 있어 산사를 둘러싼 가을단풍과 어우러져 그 고색창연함을 피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02)736-4848

문화유적의 보고 선암사

부산불교교육원 기행답사

헌강왕 5년에 도선이 창건했다는 조계산 선암사는 정유재란을 겪기 전까지만해도 셀 수 없이 많은 당우를 보유한 사찰로 유명하다.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이 불교유적지를 둘러보고 신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일 이곳 선암사로 문화기행을 떠난다.

대각국사진영과 삼층석탑, 승선교, 영산회상도, 오십삼불도, 칠성도등 소중한 유적이 즐비한 선암사는 불교문화의 진수를 맛보기에 모자람이 없다.

특히 지상에서의 설법장면과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는 장면을 그린 조선후기의 화엄경변상도는 정연한 질서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송광사 화엄경변상도와 더불어 18세기 후반기를 장식하는 보기 드문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기행은 선암사를 둘러본 후 송광사에도 들러 저녁예불도 가질 예정이어서 가족과 함께 명찰을 둘러보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듯하다.

접수마감은 7일까지, 출발은 부산불교교육원앞. (051)466-4080

수행은 성불의 씨앗

불교교육원 사상강좌

한생각 돌이키면 불법이 세수하다 코만지지보다 쉽다고 했다. 이렇게 한 생각 돌이키는 과정이 수행이다.

중앙불교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은 오는 17일 오후6시 이제열법사(유마선원)를 초청,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자유'라는 주제로 불교사상강좌를 개최한다.

스님들이 가부좌를 틀고앉아 화두를 푸는 것만이 수행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염불 기도 독경등 모든 행위가 바로 수행의 한 방편인 것이다. 이렇게 수행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만가지의 길이 있는 것이다.

그 여러가지 수행방법들을 비유해서 조사스님들은 큰 성에 들어가는 문은 한가지만이 아니라고 설한다. 즉 어떤 방법을 택하든 정법으로 수행을 할 경우 수행 그 자체가 성불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상강좌 수행관도 천만가지의 수행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불자들은 이번 강좌를 통해 자신의 작은 수행 하나하나가 성불의 씨앗임을 깊이 자각하고 용맹정진에 발을 내디뎌보자. (02)582-1080

새벽사원 74탑의 장관

실상선원 태국성지순례

태국은 전체인구의 90%이상이 불교신자인 불교의 나라로 많은 불교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실상선원(주지 정현스님)은 불교국가의 생활상을 둘러보고 불교의 이념을 실천해 불국토의 세계로 나가자는 취지에서 오는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태국 불교성지순례를 떠난다.

남방불교, 즉 소승불교의 축이라 할 수 있는 태국에는 에머랄드사원, 새벽사원, 와불사원등 고대 불교 유적지가 특히 유명하다.

높이 75㎝, 폭45㎝의 비취불상 본존이 에머랄드처럼 빛난다고 해서 이름지어진 에머랄드사원, 석가모니의 일생을 나타내는 4개의 불상과 새벽에 떠오르는 햇빛을 받아 빛나는 74개나 되는 탑이 장관인 새벽사원은 백미로 꼽힐만 하다.

접수마감은 11월 5일까지.

(02)499-4442

안입는 옷 모아 환경사랑·이웃사랑

관음의집 '헌옷은행 프로그램' 운영

버리는 옷, 쓰레기도 잘 손질하면 알뜰자원이 된다.

자원봉사 보살행을 펼쳐가는 노인무료급식소 관음의집에서는 환경운동이 생명 사랑 운동이라는 인식아래 환경헌옷은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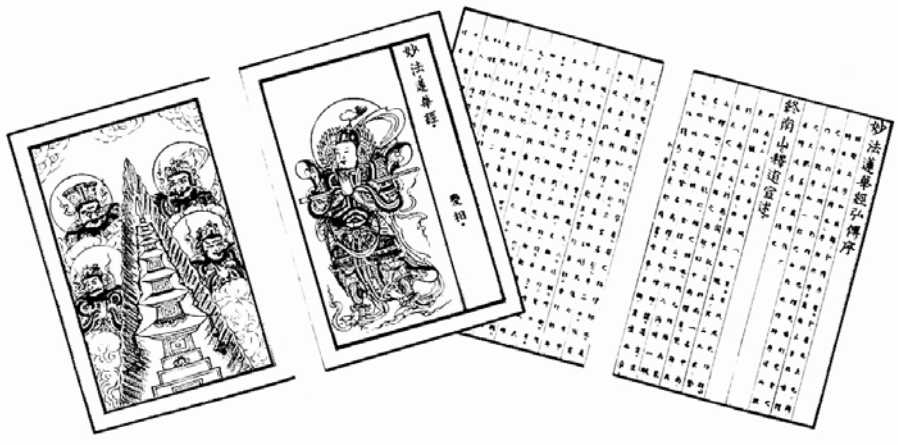
관음의집은 작아서 못 입는 옷, 유행이 지나서 못 입는 옷을 모두 모아 월 1회 헌옷 재생작업을 하며 환경사랑과 이웃사랑을 더불어 실천할 불자들을 기다린다.

(02)483-5061

원효스님의 종요·김시습의 별찬이 수록된 법화경 한장본

묘법연화경

현재 발간된 영인본과는 달리 각 품마다 대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이미 발간되었던 법화경과는 다른 도광 10년, 170년전 필사본으로 귀중한 사료로 남을 것입니다.

첫째, 원효대사의 법화경 종요 序수록
둘째, 淸寒子 김시습의 법화경 별찬·별찬서 수록

■ 내용. 최고급한지 인쇄. 수제본
■ 표지·케이스는 최고급 한지배접 제작
■ 전7권 최고급 한지 케이스 입
■ 한정판 출간 예정

값 200,000원

※ 선 주문시 15% 할인해 드립니다.

佛書專門出版
大興企劃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수성B/D 101호
전화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7백여 동문 만남의 광장 기대"

해인승가대 동문지 '九光' 창간
보광스님



가장 역사 깊은 승가교육기관인 해인 승가대학의 동문회지 〈구광(九光)〉이 개교 40주년을 기해 창간됐다.

회지를 창간한 동문회장 보광스님(부산 보타원 회주)은 "졸업동문만도 7백명을 헤아리며 자주 만나기 쉽지 않은 동문간에 지상으로 상봉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남기는 일도 의의있는 일이라 여겨 회지발간을 발원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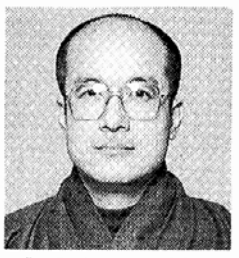
신국판 2백쪽의 〈구광〉은 창간법어 창간사 축화 축시를 비롯해 논문 수상 수행·포교단상 문화산책등 동문들의 글이 실렸다.

"종단과 사회의 지도층에 자리한 여러 동문들을 생각할때 항상 가슴뿌듯해 왔습니다. 母 강원의 40주년을 맞아 발행된 〈구광〉은 꼭 기념되는 일로 남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작한 일인 만큼 전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92년부터 고암장학회 회주로 장학사업과 함께 부산 서구사암연합회 회장일까지 맡고 있는 스님은 앞으로 해인승가대 후배 학인들의 장학금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한다. 〈란〉

"범죄없는 사회가 불국정토죠"

'재범율 제로화' 운동
혜철스님



"범죄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 그것 또한 불국정토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일이 되지않을까 생각한다"는 사단법인 한국물교교화복지선도회 회장 혜철스님의 말이다.

"교도소나 교정시설의 재소자들을 위해 법문을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사회에 나와 또다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끌기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제1회 전국교정시설 교무과장 연수법회를 실시했다"는 혜철스님은 오는 6~7일 양일간 열리는 연수회에도 전국 50개 교정시설에서 1백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연수를 통해 스님은 효율적인 교화방법을 지도하고 관련자들을 격려한다.

혜철스님은 "법무부 통계상으로 볼 때에도 불자가 재범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재소자들에게 불교의 자비보시정신과 인과법을 알리고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고, 사회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은〉

연세대서 중국철학강의 루우열 교수



"중국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한국불교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만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효관계 박사논문이 나오는 등 한국 고승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연세대 철학과 객원교수로 부임해 중국선종을 비롯한 중국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북경대 철학과 루우열(樓宇烈·62)교수는 지난해 6월 '원효불학연구구'로 북경대 첫

"원효·의상·서산 사상 연구하고 싶어"

한국불교학 박사로 확정된 김훈씨 (본지 41호 6면 참조)의 지도교수이기도 하다.

중국철학의 권위자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는 〈중국철학사〉 등 총 12권의 저서와 42편의 논문을 저술했으며, 불교관련 논저로는 〈중국불교사상자료선편〉 전4권과 〈불학과 근대중국철학〉 등 논문 14편을 발표했다.

93년 10월 백련불교문화재단이 주최한 국제불교학술회의에 참석, '선회의 돈오사상'을 발표하기도 했던 루우열교수는 한국 스님들과의 친분관계도 깊다. 한·중·일 삼국의 불교교류사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루우열교수는 "기회가 되면 우선 원효 의상스님을 중심으로 원측 지눌 서산대사 등의 사상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

창립15돌 미8군 법우회 박동윤 회장



창립 15주년을 맞은 미8군 법우회 박동윤 회장. 고향인 울산에서 어머님과 함께 학성선원에 나가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는 박회장은 미 8군 법우회의 15대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미8군내의 카투사, 연합사, 의장대에 복무중인 40여명의 군인들로 구성된 미8군 법우회는 지난 79년부터 미8군내 교회 별관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정기법회를 가져왔다.

"마땅한 영문교본 없어 포교에 어려움"

"교회라는 곳에서 법회를 본다니 일반인들은 의아해 하는 점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장소때문에 불편한 점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의 활동을 미국인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이 더 어렵지요.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을 이해시키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특히 박회장은 "법회시 미군들과 미국민간인들도 가끔 참여 하는데 그럴때마다 설법이나 불교의례등을 설명할 적절한 영문교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며 불교홍포의 난점들은 지적하기도.

박회장은 미8군법우회 15주년을 맞아 앞으로 동문선배들과 지도법사 정진스님의 도움으로 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은〉

교차로

北돕기 추진위 발족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달 20일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종교대화 30주년 기념식에서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등 5개 종교 대표들과 범종단 북한수재민돕기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륜종 2대 총무원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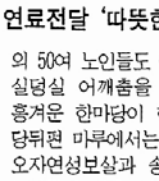
혜우스님은 오는 3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2대 법륜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한다.

'님께로…' 제주서 자선공연



지범스님(불음가수)은 오는 4일 오후3시 제주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부모은중경 제5집 '님께로 가오니' 자선공연을 갖는다.

신흥사 불사리탑 제막식



성일스님(화성 신흥사주지)은 오는 5일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에서 불사리탑 제막식을 갖는다. 신흥사 종합불사 2차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사리탑에는 그동안 사경법회를 통해 모아온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등이 모셔진다.

목동청소년회관 7돌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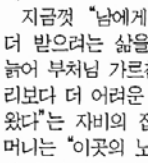


명우스님(목동청소년회관 관장)은 지난달 26일 목동 청소년회관 개관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문화예술 대학원 학술세미나

신성일씨(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영화배우)는 오는 28·29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속초 설악프라자에서 추계학술세미나를 연다.

'잡지의 날' 편집대상 받아



송금엽씨(월간 불교주간)는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제30회 잡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편집부문 대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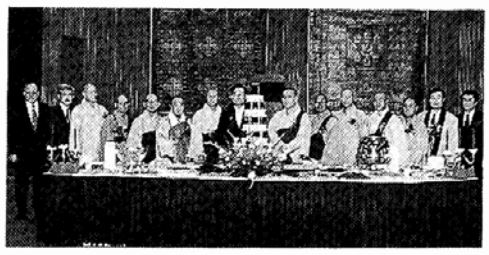
'메트로' 박물관 한국실 개원



홍라희관장(호암미술관)은 지난달 25일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필립 드 몬테벨로관장과 공동으로 한국실 설치관련 협약서에 서명했다.

인 사

조계종은 지난달 24일자로 공석중이던 총무원 사회국장에 원소스님, 사업국장에 석천스님, 사서차장에 지현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또한 현중스님은 수석 사서로 전보 발령됐다.



총지종 제46회 추계강공회 개강식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안효강)은 지난달 24일 오후3시 총지사 서원당에서 제46회 추계강공회 개강식 및 종보창간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불교TV이사장 태응스님, 대한불교 진흥원 서돈각이사장, 원융종 총무원장 배일공스님, 삼론종 종정 대산스님, 여래종 총무원장 법우스님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구룡사 선재 어린이집 개원

서울 구룡사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운영하는선재어린이집이 지난달 20일 개원됐다.

이날 개원식에는 정우스님(구룡사 주지), 무공스님(선재어린이집 관장)과 권문용 강남구청장, 김완경 강남구의장등 지역기관장, 학부모 1백여명이 동참했다.

선재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강남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실천승가회 사무실 보광사 이전법회

실천승가회(공동의장 청화·지선스님)는 지난달 25일 근본도량인 파주 보광사에서 사무실 이전법회를 개최했다.

청화스님은 인사말에서 "보광사로의 이전은 종단과 사회변화에 대한 연구와 승가회의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며 "더욱 발전하는 승가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법타스님과 회원스님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경주 분황사 원효학연구원 개원

원효성사의 교학과 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될 원효학연구원이 지난달 21일 경주 분황사(주지 종수)에서 개원됐다. 21인의 이사와 17인의 교수급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동 연구원의 원장에는 김영태 박사(한국불교학회장)가, 간사장에는 종수스님이 각각 위촉되었다. 현관식을 겸한 이날 개원식에는 불국사 조실 월산스님, 주지 설조스님 범어사 주지 정관스님을 비롯 2백여명이 참석했다.



◇ 자비의 집과 관음대비원의 노인들은 홍겨운 한마당으로 돈독한 우애를 다졌다.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경불련 자비의 집

외로운 양로원 찾아 온정 손길

청소·미용봉사에 의류·연료전달 '따뜻한 겨울'

따사로운 햇살과 알록달록한 단풍들이 어우러진 가을 오후. 모처럼의 뜻깊은 만남의 자리가 경기도 파주 관음대비원 앞마당에서 펼쳐졌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을 이용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난 몇개월간 푼푼이 모은 돈으로 선물을 마련, 이곳 관음대비원의 외로운 노인친구들을 찾은 것이다.

관음대비원의 임조스님과 원장 유보현성보살도 가을 햇살만큼이나 따뜻한 미소로 자비의 집 할머니 할아버지를 맞았고, 관음대비원과 자비의 집 노인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며 정겨운 인사를 나눴다.

이날 방문 자원봉사에는 자비의 집을 이용하는 상계동과 미아동의 노인 80여명과 자원봉사자 20여명이 함께 관음대비원의 노인들이 올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름연료티켓을 선물했다.

또한 자비의 집 자원봉사자들은 시장에서 직접 옷감을 사다가 만든 바지 37벌과 셔츠 8벌을 각각 전달하기도 했다.

점심공양이 끝나자 "덩기덩기 덩더쿵덕 덩덕 쿵덕쿵 덩더쿵덕…" 흥겨운 굿장단이 시작됐고 여기저기 모여 앉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걸쭉한 막걸리를 서로 권하며 어느새 정다운 친구가 되고 있었다.

미아동 자비의 집 김만이할아버지는 멋드러진 노래솜씨로 분위기를 돋구며 흥의 한마당을 연출해냈고, 양복동 할머니, 이재명 할아버지등 관음대비원의 50여 노인들도 어우러져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다. 또 흥겨운 한마당이 한창인 앞마당뒤편 마루에서는 미용봉사자 오자연성보살과 송애주보살이 노인들의 가을 멋내기를 돕는 미용단장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흥겨운 한마당이 끝나자 자비의 집 노인들은 모두 관음대비원 구석구석을 청소하기도 했다. 그러는사이 관음대비원 곳곳에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노년을 회향하려는 노인들의 따뜻한 동료애가 꽃피고 있었다.

지금껏 "남에게 주기보다는 더 받으려는 삶을 살아왔으나 늙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곳에 찾아왔다"는 자비의 집 이희선 할머니는 "이곳의 노인들도 우리와 함께 더욱 바른 삶으로 노년을 회향하길 기원한다"며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파주=이은자 기자

성명서

교육환경 변화에 즈음하여

중앙승가대학은 1979년도에 설립된 후 종령 제42호에 근거하여 종립대학으로 발전해오면서,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총 555명의 졸업생 스님들을 배출하고 현재 300여명의 학인이 수행과 학문에 정진하고 있다.

전 종단적으로도 중앙승가대학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규대학으로 재도약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예로 전 종정 성철 대종사께서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경관을 팔아서라도 정규 승가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현 종정이신 월하 대종사께서도 "중앙승가대학 학사 이전과 정규대학 승격을 위해 마련되는 제반 계획은 실로 우리 불교계의 앞날을 좌우할 만큼의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교육불사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종단원로이신 석주 큰스님께서는 설립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앙승가대학을 위하여 원력의 정진을 계속하셨다.

현 총무원장이신 월주 큰스님께서는 이미 여러 자리를 통하여 "중앙승가대학 이전 불사와 종단의 교육체계 확립이 종단 운영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시고, "이전 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때까지 모든 종도들의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9월 15일 중앙승가대학 신축교사 기공식 축하 메시지를 통해 "중앙승가대학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 땅에 진정한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할 승가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축하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불교방송에서도 "중앙승가대학은 한국의 나란다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전 국민과 불자들에게 계속 홍보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해 왔다.

그러나 금년 5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교육개혁안은 교육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전 대학이 무한경쟁의 체제에 돌입하면서 중앙승가대학도 그에 따른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더욱이 '97학년도부터 대학의 정원 자율화가 실시되면 교육환경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향후 중앙승가대학은 독자적인 학생 선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중앙승가대학은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승가대학은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중앙승가대학이 발전되어야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종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종단에서 운영하는 독자적 교육기관에 의하여 교육되어야만 종단의 이념교육이 보장될 수 있다. 종단의 승가교육은 일반 대학교육과는 달리 불조의 정법을 계승하고 수행의 가풍을 진작하며 중생교화의 원만한 인격과 교양이 갖추어지도록 전문교육불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종단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중앙승가대학은 종단의 독자적 교육기관으로 계속 발전·성장해야만 종단의 앞날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만약 자유경쟁체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육기관에 승가교육을 위탁할 경우, 종단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승가교육을 위탁하게 되면,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승가교육의 앞날을 보장받기는 매우 힘든 일이며, 설사 승가교육이 계속 존속된다 하더라도 종단에서 책임져야 할 재정적·심정적 부담은 독자적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욱 가중되어 인재양성에 지장을 받음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앙승가대학은 종단의 독자적 승가 전문교육기관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셋째, 만약 중앙승가대학이 계속 발전하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의 교육불사의 포기와 대내외적으로 약속한 공약의 불이행으로 종단의 신뢰성은 상실되고 종단과 불교의 발전에 다시 없는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인재교육의 차질로 인하여 종단의 불사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포교활동을 비롯한 대사회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점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서 종단운영에 제1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당위성이 있으므로 중앙승가대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해야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총무원에서는 승가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력과 지도력을 총동원하여 중앙승가대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원에서는 종단에서 "운영"하는 중앙승가대학과 종단에서 "지원"하는 여타 교육기관을 분리하여 각별한 대책과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불기 2539년 10월 18일
중앙승가대학교수협의회

'고통 나눔' 정의실현 열쇠삼아

산문밖의 수행

인권불침번 박원순 변호사



"부처님 법은 만물을 사랑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세속법 역시 최소한의 도덕으로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뿐
중생제도는 다를바 없지요"

전화벨 소리가 계속해서 요란하게 울리고 헐렁한 넥타이 차림의 40대 남자가 수화기를 통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기자가 찾아 들었는데도 눈으로밖에 인사하지 못할 정도로 손놀림도 바삐 돌아가고 있었다.

박원순변호사(4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정력가. 이름 꽤나 알려진 셈치고는, 법조인이라는 딱딱한 선입견과는 달리 시골 여느 구석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온화한 얼굴이다.

"사건을 맡아 변론하는 것이 제 본업이긴 하지만 한 시민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사회구현에 전념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근래들어 최고의 쟁점으로 떠오른 5·18문제와 인권, 통일, 국가보안법, 일본군 위안부문제등 민주사회와 바른 역사를 찾기 위한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 박변호사.

경기고 서울대를 거쳐 22회 사시에 합격 세칭 최정예코스를 거쳐왔기에 남부러울 것이 없어보이지만 그의 고민은 늘 숙제로 남아있기만 하다.

"지금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권리마저 빼앗긴 채 그늘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권변호사, 그는 자신에게 붙어다니는 이 수식어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인권변호사라는 단어가 없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고교때 '룸비니' 활동 인연

그렇기에 그의 고민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고루 나누어 줄 수 있을까로 시작된다. 남부러울 것 없는 위치에 와 있으면서도 동분서주하며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을 바꾸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변호사가 불교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때는 경기고 재학시절 불교 동아리 '룸비니' 활동을 하면서 부터다.

바쁜 일상탓에 자주 산사를 찾지는 못하지만 불교계의 관련행사가 있을 때는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곤 한다.

그런 불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박변호사는 사회문제를 다루는 지식인답게 불교의 대 사회활동을 강조한다.

"이젠 불교도 사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천6백년동안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만큼 불교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다운 삶을 역설하신 인간해방론자였음을 상기시킨다. 부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부처님이 자상하게 알려주신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이 사회의 온갖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문제들은 일어날 수가 없음에 박변호사에게는 불교의 소극적인 사회역할이 너무나 아쉬운 것이다.

"수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민족종교의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로 성큼성큼 걸어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신적 귀의처가 돼야 합니다."

시민운동이야말로 민주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으로 현재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맡아 시민운동의 일선에서 뛰고 있다. 그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다름아닌 이 사회의 진정한 평화이다.

그렇기에 그는 민족성을 강조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갈구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의 철학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한여름 소나기 로 녹아내리고 있다.

법은 인간다운 삶의 도구

때로는 폭주하는 업무와 자신 스스로가 벌여놓은 일에 대해 회의로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러나 결코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부처님 법으로 사람 일이 다루어지는 그날까지 세간법에 전념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시절 뜻하지 않은 4개월여의 수감생활. 그덕에 책에 빠져 '책의 바다'를 항해하던 시절, 고시공부중 힘겨울 때마다 자신을 붙잡아주었던 '고려 고승 한시선'의 원효스님 詩 한 구절…. 이 모든 것이 오늘날 목소리를 높이며 약한 자의 불침번이 된 오늘의 그를 있게 한 것이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부처님 법과 인간이 만든 법(법률)의 차이를 물었다. 분명 어려운 질문이었다. 그러나 박변호사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문을 열었다.

"부처님 법은 만물을 사랑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또 세속법도 최소한의 도덕으로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크고 작고의 차이만 있을 뿐 진리를 펴고자 함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중생을 제도하는 일과 법조인이 그늘진 사회를 밝게 하는 역할이 다를 바 없다는 한마디로 자신의 일을 이렇게 표현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세속법을 부처님법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속법의 법률가로서가 아닌, 부처님법의 전달자로서 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원순변호사는 자신이 품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원력을 부처님법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한명우 기자

"세속법에 묻혀 살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척도"



삽화 · 이기선

몸의 때보다 마음의 때 먼저 씻자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㊽

법욕(法浴)

法水로 목욕하면 큰 믿음 나와

사람의 몸에는 가만히 있어도 때가 낀다. 살갗이 자연과 작용하기 때문인가. 아무리 목욕을 자주한다해도 얼마 지나면 때가 묻게 된다. 강이나 못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제 몸을 청결히 하기 위한 것이다. 목욕을 하고 나면 상쾌하다. 해수욕을 하거나 열탕욕을 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태양의 조광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일광욕을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임간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자연의 맑은 공기를 체내에 공급하여 심장기능을 해맑게 하는 것이리라. 새들도 모래목욕을 하고 뭇짐승들도 강이나 호수를 만나면 목욕을 한다. 사람이나 금수도 매한가지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일찍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목욕에 대한 법설이 있다. 법의 물에 목욕을 하면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얻는다고 하였다.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비사리국 잔나비못 곁에 있는 강당에 계셨다. 때에 리차비종족으로서 코끼리를 잘 다루는 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 절하고 한 쪽에 물러나 앉았다. 그때에 세존께서 난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성인의 제자로서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성취하면, 수명을 구할 때에는 곧 수명을 얻고, 좋은 얼굴 빛과 힘, 즐거움, 말솜씨를 구할 때에는 곧 자유로이 그것을 얻을 것이다.

어떤 것이 네 가지 깨끗한 믿음인가. 그것은 부처님에 대해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성취하고, 법과 승가, 거룩한 계율에 대해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믿음을 성취한 성인의 제자는 여기서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태어나고, 천상에서는 열 가지 법을 얻는 것을 보았다.

열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하늘의 수명 하늘의 몸 하늘의 이름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자유 하늘의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이다. 만일 그 성인의 제자가 천상에서 목숨을 마치고 인간에 와서 나면, 그는 열가지 일을 완전히 갖춤을 나는 본다.

인간을 구성하는 열가지 법은 무엇인가. 사람의 수명, 사람의 좋은 몸, 이름, 즐거움, 자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이다.

그와 같이 많이 들은 성인의 제자들은 남의 믿음이나 남의 욕심을 의지하지 않고 남의 지식을 따르지 않으며, 남의 뜻을 취하거나 남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진실하게 보고 아는 바른 지혜를 가졌다고 말한다."

그때에 난다에게는 따라온 이가 있었는데 그가 난다에게 말하였다.

"목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하겠습니다."

난다는 대답하였다.

"나는 인간의 목욕이 필요없다. 나는 지금 이 훌륭하고 묘한 법에 스스로 목욕하였으니, 세존 계신 곳에서 나는 깨끗한 믿음과 즐거움을 얻었다."

리차비종족 코끼리 다루는 사람 난다는, 그때 이처럼 부처님 말씀을 듣고 따라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고 떠났다.'

이 경문은 이차경(離車經)의 말씀이다. 세상사람이 몸의 때를 씻기 위하여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천상이나 인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밝히고 참다움을 구현하는 법수(法水)에서 세척되면 금강보리를 성취한 것이다.

세속의 오염도 씻어내어야 하지만 진여법해에서 번뇌를 씻어내는 목욕을 하여야 한다. 난다의 목욕은 깨침을 열어주는 것이므로 법신체가 되는 목욕일 것이다. 정상배가 하루종일 사우나탕에서 세속을 물들이는 궁상을 떨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청정한 가르침인가.

국씨전영양소
전국 광역시단위 총판 및 시도지역 대리점 모집

확실한 성공 사업의 지름길로 초대합니다

■유통업자 ■기존 다이어트 아이템 취급자 ■사업체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분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는 분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 · 당뇨 · 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자하여 만든 제품.

부산경남총판
(051) 818-0337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평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정 우 무 역
전화:(02) 929-021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

'환경과 생명윤리' 韓日학술교류회의

"환경보존 주역은 인간의 마음"

각종의 환경문제와 자살 낙태 안락사 뇌사 장기이식 등 새로운 생명윤리문제에 불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동국대와 일본 大正대학은 지난 10월27일 동국대에서 '환경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제8회 한·일 학술교류회의를 가졌다. 동국대 정태섭교수의 사회와 홍윤식교수의 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에는 양국에서 3명의 발표자가 각각 나서 현대사회의 환경 및 생명문제를 불교적으로 해석하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불교에 있어서의 환경과 생명윤리'를 발표한 법산스님(동국대교수)은 "우리가 먹고(地) 마시고(水) 체온을 유지하며(火) 숨쉬고(風) 사는 것은 천지자연과 목숨을 같이 하는 신토불이(身土不二)이다"며 "불교의 무아·불이(不二)사상은 시방삼세(十方三世)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이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니므로 편견과 집착을 버리고 상의상존의 원융무애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극락정토를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생명윤리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응을 모색한 제8회 한·일학술교류회의.

법산스님 자연과 인간 공생관계 '不二사상' 강조

장기매매방지법·호스피스운동 제창 석상선응교수

법산스님은 "중생이 몸담고 있는 우주자연인 의보(依報)와 작업의 주체인 중생, 즉 정보(正報)가 '불이'이므로 자연이 곧 자신이며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색심불이(色心不二)의 관계를 밝혀 인간의 마음이 환경보존의 주역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불교학회의 대응과 고생(苦生)사상'을 발표한 대정대 石上善應교수는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일본인도학불교학회와 생명윤리위원회의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일본인도학불교학회는 △뇌사 장기이식 등을 고려할 때 인간의 생명존중을 기본적인 시각으로 두고 결정할 것과 △보시의 숭고한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장기이식을 위해 장기매매등을 방지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고 △임종환자를 위한 불교호스피스(hospice)운동등 불교신자의 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생명윤리와 불교'를 발표한 대정대 田中雅博교수는 일본 보문원(普門院)진료소의 환자 6백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설문조사 결과에는 '당신이 뇌사상태로 된다면 어떻게 해 주길 바라는가'란 질문에 75%가 '치료를 중지하길 바란다', 16%가 '심장이 뛰는한 치료해 달라', 5%가 기타로 나타났다. 또 '뇌사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길 원하는가'란 질문에는 50%가 '그렇다', 41%가 '그렇지 않다'로 나타났다.

김재경 기자

"이능화, 거사불교운동 틀다졌다"

이재헌씨 '일제하…' 서 주장



일제하 불교계의 대표적 학자였던 이능화(李能和: 1869~1943)를 중심으로 당시 지식인들의 역사인식을 조명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논문은 여의도 중학교 교사인 이재헌씨(정신문화연구원 박사과정수료)가 지난 10월20일 정문연 한국학대학원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일제하 불교지식인들의 역사인식과 대응양상에 관한 연구'가 그것. 이씨는 "그간 친일단체로 알려진 불교진흥회(1914~1917)의 〈불교진흥회월보〉 편집·발행인으로 활약하며 거사불교의 이념적 기초를 세웠던 인물이 이능화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불교진흥회는 1917년 해체되어 이완용 권중현 등의 불교융호회로 넘어가면서 더욱 친일의 성격이 강해지자 자발적인 민간단체인 조선불교회를 조직, 거사불교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일제침략 이래 불교계의 대응을 △전통불교를 수호하던 선승들(신혜월 방한암 송만공 등) △총독부와 타협한 사찰령 이후의 본산(本山) 주지들 △불교계의 자각과 개혁을 통해 항거한 세력들(한용운 백용성) △중간자적 입장의 불교학자들(이능화 권상로 박한영 김영수 등) 등으로 파악했다.

◇11월中 불교학술발표회 일정

주 최	주 제	때	곳	연락처
통도사	불교와 환경	11.1	통도사설법전	(0523)82-7182
한국불교학회	자유발표	11.4	동국대	(02)260-3122
한국종교학회	한국종교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11.4	이화여대	(02)705-8348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	조선초 불가문학의 동향과 의미	11.10	동국대명진관	(02)260-3145
한국불교연구원	동서양 고전에 나타난 道	11.18	타워호텔	(02)3411-6167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조선시대 불교사의 새로운 이해 I	11월중순	중앙승가대 정진관	(02)260-3385
회당학회	자유발표	11월말	대구심인당	(02)942-8345
한국종교교육학회	미정	11월말	미정	(02)275-2607

지난 10월21~22일 송광사 사자루에서는 '한국선의 원류-나말려초 구산선문(九山禪門)' 주제의 보조사상연구원 제8회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조계종의 기원과 전개'를 발표한 허흥식교수(정신문화연구원)가 그간 독자적으로 주장해 온 나옹(懶翁)법통설과 14산문설을 다시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보조사상연 학술회의


◇송광사 보조사상연구원이 개최한 제8차 학술회의.

조계종 나옹법통설 조선 중엽까지 통설

허흥식교수 '태고설' 16세기 지나 등장…9산문 고려중기 확립

허교수는 "불교학계의 다수설인 태고법통설은 14·5세기의 현실과 다른 조선후기에 비롯된 견해"라면서, "조선전기에는 나옹의 법손이 불교계를 주도했으나, 조선후기에 등장한 태고법손을 자처한 고승들이 불교계를 이끌면서 오늘날까지 통설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옹법통설은 임란후인 1610년대까지 존속했지만 청허휴정의 소장문도에 의해 태고법통설이 부각되면서 미미해졌다는 것이다.

허교수는 또 "고려중기 이후에야 9산문설이 확립되었다"고 밝혔다. 허교수는 "9세기 후반에 최치원이 왕명으로 쓴 '봉암사 지증대사비'에는 지증대사가 속한 희양산문을 제외하고도 13산문과 그 조사 법명(法名)의 끝글자를 첨가해 3자씩 수록했다"며 "이 비문은 893년에 쓰여졌으므로 9세기 말에 적어도 14산문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나옹법통설과 관련, 김영태 교수(동국대)는 "현행 승가의 〈예송의범〉에 나옹이 3화상청(和尙請)을 비롯 불사작법(佛事作法)의 증명법사및 조사로 받들여지고 있으며, 〈동국승니록〉등에 태고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나옹은 상당한 비중으로 수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후세에 태고법통설이 우세를 점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선이 전통적으로 임제종을 으뜸으로 여기는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14산문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1987년 설립이래 정혜결사·돈점·종조문제 등을 제기하며 불교학계의 토론문화를 이끌어 온 보조사상연구원은 올해 처음으로 보조사상을 넘어선 한국불교 전반에 걸친 연구영역의 확대를 모색해 호평을 받았다.

'주인공'이 대상으로 연상되는데…

문 '주인공'에 대해 다시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스님께서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말고 그 자리에 몽땅 맡기라고 하시는데 그러다보면 자꾸만 어떤 대상, '아트만' 같은 것을 연상케 됩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유양호·서울 서초구 우면동〉

답 전에도 같은 질문에 대답을 했었는데〈35호 참조〉 아직도 이해가 안되신 모양이군요. 하긴 이해해서 될 일은 아니지요.

주인공이란 말은 그냥 이름이니 달리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주인공이란 언어와 명상(名相)을 초월한 것이요,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처사님께서는 주인공이 일체를 한다고 믿고 맡기라니까 개별적인 '나', 개별적인 '그 무엇'을 연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로써 이미 전체를 의미합니다. 일체 법을 감싸고 일체 법을 지탱하며 일체 법을 굴리는 도리를 주인공이라 하는 것이니 어찌 네 주인공, 내 주인공 하는 나눔이 있겠습니까?

본래로 한 물건도 없다 했으니 주인공 또한 이름일뿐 공(空)이라 하겠으나 그것을 문제삼지 마세요. 참으로 알 것을 알아야 그 아는 것을 버릴 수 있고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무아의 도리, 공의 도리를 아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을 발견코자 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말로 하자니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무'했던 것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으시거든 '주인공은 내 육신과 마음 내는 것과 불성을 다 싸잡은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퀴와 바퀴살과 중심축이 하나로 돌아가지 따로따로 돌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그것을 주인공, 빌 공(空)자 주인공이라 한 것입니다. 고로 '주인공 당신만이…' 할 때는 이미 전체가 궁그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염려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불자들이 밖으로 대상을 지어놓고 그 대상에 빌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불법공부가 마음공부이지 바깥대상(우상)에 의지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바깥 대상을 세워 놓으면 벌써 둘이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찾아라, 주인공 자리에 놓아라 하는 것인데 안과 밖을 구분해서 규정짓는 말이 아니라 안팎이 따로 없으니 대상을 향해 돌로 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나와 너, 주체와 객체로 나뉘보던 습 때문에 둘 아닌 도리가 가물가물 하겠지요. 그래서 주인공! 하여 하나로 싸잡으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집착이 너무 강해요

문 제 나름으로는 불법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나'라는 집착에 빠져서 헤매이게 됩니다. 경전에 보면 아상(我相)을 버려야 한다고 되어있고 스님께서도 늘 '네가 죽어야 너를 본다' 하시는데 자존심이라고 할지, 자애심이라 할지, 하여튼 시시때때로 '나'를 앞세우는 마음이 강하게 고개를 들어서 불법공부가 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근기가 약한 탓일까요.

〈이흥동·광주 동구 금남로〉

답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가상하고 눈물겹습니다. 경전을 보았다니 금강경의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에 대한 가르침을 아시겠군요. '나'라는 생각에서 빚어진 일체의 상이 녹아내리지 않으면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진이 되어야지요.

근기 탓을 하실건 없습니다. 근기가 약하다는 생각도 누가 하는 생각입니까?

그러한 생각, 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우선 그것을 알아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라는 집착인줄조차 모른다면 공부를 하고 말고, 되고 안되고를 돌이켜 생각해보지도 못하겠지요.

근기가 약하다고 스스로 규정짓지 마세요.

놓긴 놓아야 겠는데 왜 놓질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걸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자문자답, 아니 마음 속으로 호령을 해보세요.

'이놈아, 그래 네놈이라는 게 뭐라고 놓질 못하냐!'

자기가 주인공도 되었다가 중생도 되었다가 그렇게 둘 아니게 자문자답 해보는 것입니다. 답답한 생각도 딴데서 나오는게 아니라 다 제 속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공부를 방해하는 생각도 다른 곳에서 나와 주고 뺏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화를 해보세요.

예를들면 '야! 이놈봐라' 해도 좋고 '그래 너 참 슬기롭게 잘하는구나' 해도 좋고 '그래 감사하구말구' 해도 좋습니다. 잘하면 쓰다듬어주고 입맞춰 주고 잘못하면 엉덩이 걷어차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왜 어느 스님이 팔죽 쑤면서 방울방울마다 주걱으로 내리치며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 했다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서 물리가 터집니다. 샘솟듯이 말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제2회 전국 교정시설 교무과장 연수 법회 및

재범률 제로화운동 결의 대법회 안내

1989년 부처님의 자비, 보시정신으로 교정시설내 수용된 재소자들을 효율적으로 교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가 설립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회에서는 제2회 전국교정시설 교무과장, 교무계장, 불교담당, 불자회장 연수법회와 제산대덕 큰 스님들을 뫼시고 재범률 제로화운동 결의 대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그들을 위로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9년 10월 일

입 시:불기 2539(1995) 11월 6~7일

장 소:엠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6일 오후6시~8시30분)

격려사 : 송월주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안우만(법무부 장관)

주 최: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 (02)813-8842, FAX 812-8841

후 원:법무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대한불교진흥원, 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 한국불교포교사협회, 불교TV, 불교방송, 법무부 갱생보호회 불교협의회,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 그 외 교계 주요 언론사

동참금:5만원(교화보시금, 만찬)

은행지로 7615731

한일은행 319-045950-01-001(예금주: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외환은행 119-13-08005-1(예금주: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조흥은행 394-06-162425(예금주: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상업은행 130-05-001140(예금주: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우 체 국 012070-0056581(예금주: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국민은행 029-01-0855-685(예금주: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농 협 064-01-164453(예금주:한, 불, 선)

※10월 31일까지 참석여부를 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참석못하시더라도 다소나마 보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명 안덕암 대종사

고 문 송월주 박성도 유동산 이법흥 박승용 석일화 우영명 석대산 김대호 문구암 정보성 권태허 천혜안 선각해 김도용 권범호 박운파 전야웅 이동광 이청봉 록 정

대회장 김명윤

지도위원 : 박서봉 전운덕 김락혜 이홍파 김대호 설대운 김법은 김혜정 정혜일 김광태 이태옥 정법륜 정회수 이법덕 김명곡 정회수 안효강 배일공 이대화 윤지명 김법우 신명관 김혜곡 정법승 현봉혜소 암 권태순 전홍수 조일형 김무해 최혜초 이혜우 김혜운 석의륜 김동암 박의성 정덕일 전홍수 조일형 설정현근 정현 지홍 현혜 철웅 법장 법성 무공 일타 설조 지관 고산 정관 목산 법조 도영 종열 현고 천운 중원 혜산 월운

봉행위원장 이혜철

부위원장 이기남 최홍주

이 사 남경희 이일광 홍환구 양윤수 임월자 신동회 정 현 최중찬 이한봉 이용모 이선행

지부장 최혜산 박성건 이지홍 전덕분 김화숙 곽태일 박철수 김맹례 송영애 한상호 김혜광 권숙욱 김미영 장명희

자문위원(무순)

강선영 강희찬 곽정출 권익현 권해옥 김동권 김동근 김문기 김영일 김운한 김정수 김진영 김찬우 노인도 박규익 박규식 박우병 박준규 박태준 배명국 서석재 손승덕 손두호 송영진 신재기 유수호 이건영 이순재 장영철 정동호 정재철 정태영 조영장 주양자 최돈웅 허재홍 황윤기 권오태 강경식 강보성 곽정현 고세진 고재청 고원준 김근수 김노식 김병수 김 식 김양배 김영생 김 집 김진기 김태호 김정길 김홍만 박경석 박권흠 박유재 박익주 박지원 박현태 배명인 손주환 손태곤 백찬기 선민선 안영기 양재항 연제원 염길정 윤길중 이강희 이기삼 이규호 이상민 이용택 이중희 이철승 임인규 진병우 진종천 진용원 정시봉 조강목 조기상 조상대 조용지 조일제 조중익 조만후 진치범 최명헌 최영덕 최재구 함종한 황 설 황성균 황대봉 황병우 박희태 한정섭 송영길 목정배 신영순 하문수 권오현 강성호 김시영 김주량 최문영 안규준 성순경 구자순 남강수 명국환 진송남

추진위원장 정성도

부위원장 : 서철화 서무공 류혜준 석법정 박강봉 김무찰 김해동 김일남 홍숙희

추진위원 : 세웅 원산 혜봉 석우 철우 금선 경담 학성 영계 청은 보화 김법은 석혜명 석혜련 이고히 손가산 석혜득 석혜춘 정지현 광명행 청정행 백운제 이원명 최성엽 김은애 김묘묵 김해운 이각명 김형민 고진법사

집행위원장 정혜성

부위원장 : 장각성 장사공 노병섭 박운곡 문부성 김성수 박일서 정정순 김용직 정광수

기획분과위원장 : 남월산 부위원장 이혜천 정동식
재무분과위원장 : 김무공 부위원장 장동순 손종안
의전분과위원장 : 박만화 부위원장 강혜일 손상묵
심의분과위원장 : 이법해 부위원장 주형근 이정희
홍보분과위원 : 심만춘 부위원장 남궁상 빈태봉 김묘주 김운호
동원분과위원장 : 혜 각 부위원장 김세웅 손안식
설비분과위원장 : 일 도 부위원장 허 운 이광남
경호분과위원장 : 장운혁 부위원장 임 은 손북수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후원회원

한국불교 포교사협회 회원, 동작구 불교연합회 회원 그외 전국 각 사암주지, 불교단체 대표 등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회장 이 혜 철 합장

"불교문학은 자기를 찾는 작업"

문화훈장 寶冠 받은 이 원 섭 시인

지난 20일 '문화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훈장 보관(寶冠)을 받은 원로 시인 이원섭선생(71세). 교계에서는 수많은 저서 역서를 낸 재야 불교학자이며 정신적인 불교운동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평생을 시 창작과 경전 및 불교교리를 현대적으로 새겨 널리 일깨워온 그를 만나 불교와 문학에 대해 들었다. 바로 내년이 '문학의 해'여서 특히 그의 문학관은 큰 울림을 준다.

수요 인터뷰



수령소식 주위에 안알려

-훈장을 받으신 소감부터.

▲최근 20년동안 불교일만 매달려와 실질적으로 문단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름만 원로였을 뿐 그동안 한 일이 없어서 사실 문체부로부터 훈장소식을 전해 듣고는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닌지 무척 고민했습니다. 상도 받을만 할 때 받는 것은 영광이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웠고 또 문인이 훈장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훈장을 사양하면 괜히 말썽이 생겨 더 소란스러울 것도 같고해서 그냥 받았지요. 수령식날도 가족에게조차 얘기 않고 혼자 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詩作생활을 떠나 계셨다고 하셨는데 시인으로 20년이나 절필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는 내 속에서 절실한 것이 보이고 분출해 나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먼저 스스로 자기 안에서 뭘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선시는 나 스스로 아직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선시는 언어분별을 초월한 종교적 체험의 결정체인데 깨달음의 체험없이 어떻게 선시를 단 한줄이라도 쓸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생기면 저절로 선시가 써지겠지요.

그리고 꼭 쓰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쓰고 싶을때 쓰게되면 쓰고… 그런것들이 큰 문제는 아니지요.

-요즘 불교문학의 이름으로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불교문학계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불교적인 소재로 문학을 했다고 해서 다 불교문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진실은 자기를 찾는 작업, 즉 자기구명(自己究明)입니다. 경전이나 철학서적등을 통해 외부에서 배우는 지식은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보살님 선사에 대한 찬가를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신행의 영역이지 문학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더구나 이상스런 말을 늘어놓는 것 그것은 말의 유희일 뿐이지 선문학이 아닙니다. 책상머리에서 상상만해서 쓰는 문학이 불교문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진실한 자기를 보는 '자기탐구'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불교문학관은 어떤것인지요.

▲글쎄요. 관념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문학하는 이는 불교를 마음속에 받아들여 화학적인 어떤 작용을 일으켜 불교문학계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불교적인 소재로 문학을 했다고 해서 다 불교문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진실은 자기를 찾는 작업, 즉 자기구명(自己究明)입니다. 경전이나 철학서적등을 통해 외부에서 배우는 지식은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보살님 선사에 대한 찬가를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신행의 영역이지 문학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더구나 이상스런 말을 늘어놓는 것 그것은 말의 유희일 뿐이지 선문학이 아닙니다. 책상머리에서 상상만해서 쓰는 문학이 불교문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진실한 자기를 보는 '자기탐구'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불교문학관은 어떤것인지요.

▲글쎄요. 관념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문학하는 이는 불교를 마음속에 받아들여 화학적인 어떤 작용을 일으켜 불교문학계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깨달음서 禪詩나와…불보살 문자찬탄은 신행

20년동안 절필…경전·선시번역 교리해설 몰두

▲불교적인 소재로 문학을 했다고 해서 다 불교문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진실은 자기를 찾는 작업, 즉 자기구명(自己究明)입니다. 경전이나 철학서적등을 통해 외부에서 배우는 지식은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보살님 선사에 대한 찬가를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신행의 영역이지 문학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더구나 이상스런 말을 늘어놓는 것 그것은 말의 유희일 뿐이지 선문학이 아닙니다. 책상머리에서 상상만해서 쓰는 문학이 불교문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진실한 자기를 보는 '자기탐구'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불교문학관은 어떤것인지요.

▲글쎄요. 관념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문학하는 이는 불교를 마음속에 받아들여 화학적인 어떤 작용을 일으켜 빚어낸 산물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불교신앙과 자신의 마음이 부딪쳐 빚어지는 갈등도 포함되겠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 〈법화경〉번역 이었습니다. 무슨일이든 정성을 기울입니다만 당시 번역의 관점에서 많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문학성을 발휘해서 현대감각에 맞게 의역했지요. 그러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의 그 장중한 맛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한자어를 보다 쉽게 살려나갔습니다.

한때 〈한글 성경〉을 작업한 분익환목사가 검토해보라고 했을때 어휘사용에서 종교서적으로의 장중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쪽의 정서때문인지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문학 '자기탐구'에서 출발

-선생님, 내년은 '문학의 해'입니다. 문단원로로서 한말씀 들려 주시지요.

▲내가 문학을 시작한게 48년입니다. 바와 맞아떨어져 시간가는 줄 모르며 20년을 해온 셈이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 〈법화경〉번역 이었습니다. 무슨일이든 정성을 기울입니다만 당시 번역의 관점에서 많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문학성을 발휘해서 현대감각에 맞게 의역했지요. 그러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의 그 장중한 맛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한자어를 보다 쉽게 살려나갔습니다.

한때 〈한글 성경〉을 작업한 분익환목사가 검토해보라고 했을때 어휘사용에서 종교서적으로의 장중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쪽의 정서때문인지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문학 '자기탐구'에서 출발

-선생님, 내년은 '문학의 해'입니다. 문단원로로서 한말씀 들려 주시지요.

▲내가 문학을 시작한게 48년입니다. 나이를 먹다보니 80년대 중반까지는 문인협회 부회장, 현대시인협회 회장이라는 감투도 씌워주더군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요즘 문학은 관점을 지나치게 외부에 두고 있습니다. 치열한 작가혼을 볼수 있는 내면의 세계가 확연히 느껴지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남의 일과 밖의 일에는 준엄한 '판사'이면서도 자기일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깝고 '변호사'가 되려하는 속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문학은 더 깊이를 가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요즘 하고 계신 일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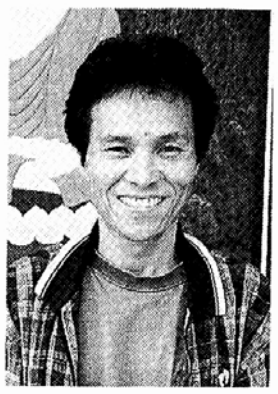
▲5년전부터 천태대사의 〈법화현의〉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석까지 달다보니 분량이 꽤 됩니다. 현재 1만5천매 정도 진행됐지요.

-감사합니다.

대담 : 위영란 부장

나의 수행일기

정부기 〈작곡가·중앙대 교수〉 上



먼 과거의 어느날, 우리 집안에 큰 일이 있었다. 가족이 있는 아버님께서 스님이 되신다는 것이었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동네의 많은 분들이 만류하였건만, 아버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접어두고 서울 삼각산에 있는 절로 훨훨 날아가버린 것이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와 고모님댁에서 기거하고 있던 나는 주말이면 고모님과 함께 우이동가는 버스를 타고 삼각산으로 발걸음을 향하곤 하였다. 진입로가 뚜렷하지 않았고 경사가 급한 산길이라 목적지를 찾는데 많은 고생을 하였다.

산 중턱에 위치한 영산법화사 삼각산 도량은 토담집이 한채 있었고 그뒤에 돌부처님이 한분 서 계셨다.

경치는 절경이었으나 알 수 없는 고요함이 한껏 펼쳐있는 분위기였으며 몇분의 수행자만이 그곳에 기거하고 있었다. 첫 방문때 누구의 자식이라는 말을 전하고 아버님을 찾았으나 나무를 하러 가셨다고 수행자 한분이 말씀을 해 주셨다.

이외에 법회에 참석하는 일이었다. 법회는 아버님과 친척들 그리고 몇명의 집안식구들과 동네사람들이 모여 목탁을 치며 열심히 법화경을 읽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한시간 반 가량이 소요되었다. 할만한 때도 있었으나 죄없는 목탁에게 반항한 적도 있었으며 나 자신을 잊고 지루함도 잊고 시간도 잊고 모든 것을 잊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 형제에게는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였고 아버님이 출타하실 때에는 큰스님 대신 작은스님 역할까지 해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번의 쓴잔을 마신 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성장과정에서 내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중놈'의 자식이라는 것이었으며 넉넉하지 못한 집안형편과 연로하신 부모님, 부모님 곁을 떠나 있었던 것 등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 모든것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창작에 있어서 그때의 상황은 민족적이며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던 시기였으며 보다 우리의 것을 찾던 시기였다.

그때 서울에서 살았던 학생들에게는 한국적이고 민족적인 것에 접근하기 어려웠을지 모르나 아버님과 함께 했던 법회 때의 선율들이 내 머리속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곡을 쓴다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일찌기 고향을 버리고 얻은 나의 향수병이 염불가락을 오선지 위에 쉽게 뿌려주었다.

그후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유학중에 아버님은 열반하셨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식만 들어야 했다. 아버님의 공덕으로 유학을 마친후 이십대의 나이에 학교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다.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자신보다는 제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 하였으며 친구로서 선배로서 보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접근하도록 노력하였다.

우연한 기회에 음악에 열의가 있으신 수법스님, 정덕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파랑새 울고"(초파일 송가)를 계기로 찬불가를 작곡하기에 이르렀다.

오선지 염불가락 독일서 인정받아

어느날 입산한 아버지 따라 '작은스님' 역할도



얼마 후 아버님을 만났으나 아버님 같지 않으신 아버님을 뵙게 되었다.길게 기르셨던 검은 머리는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렸고 남루한 옷차림에 검은 고무신을 신고 계셨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서글픔과 알 수 없는 쓸쓸함 뿐이었다. 그때의 상황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된다. 내게 있어서 작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후 눈이 오는 겨울날에도 신발에 새끼줄을 매고 산을 올라 아버님을 찾은 적이 있고, 아버님을 아버님이라 부르지 못했던 일, 그때 먹었던 공양 등을 잊을 수가 없다.

그후 큰스님께 계를 받으시고 진해에서 수행을 하시던 아버님께서 우리동네 뒷산에 조그만 집을 사시어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작은 도량을 마련하셨다. (영산법화사 모은도량)

2백여호가 사는 동네였으나 면소재지였기 때문에 작은 마을은 아니었다. 우리식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인연 있던 모든 분들이 우리 사찰의 신도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의 어려운 일이나 궂은 일 그리고 농사까지 지으시며 수행생활을 계속하셨다.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던 나는 집에 가는 것이 유일한 나의 꿈이며, 희망이었다. 도량을 마련하신 후 방학이 되어 고향에 갔을 때 내게 어려운 일이 주어졌다. 그것은 농사일이외에 법회에 참석하는 일이었다. 법회는 아버님과 친척들 그리고 몇명의 집안식구들과 동네사람들이 모여 목탁을 치며 열심히 법화경을 읽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한시간 반 가량이 소요되었다. 할만한 때도 있었으나 죄없는 목탁에게 반항한 적도 있었으며 나 자신을 잊고 지루함도 잊고 시간도 잊고 모든 것을 잊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 형제에게는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였고 아버님이 출타하실 때에는 큰스님 대신 작은스님 역할까지 해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번의 쓴잔을 마신 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성장과정에서 내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중놈'의 자식이라는 것이었으며 넉넉하지 못한 집안형편과 연로하신 부모님, 부모님 곁을 떠나 있었던 것 등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 모든것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창작에 있어서 그때의 상황은 민족적이며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던 시기였으며 보다 우리의 것을 찾던 시기였다.

그때 서울에서 살았던 학생들에게는 한국적이고 민족적인 것에 접근하기 어려웠을지 모르나 아버님과 함께 했던 법회 때의 선율들이 내 머리속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곡을 쓴다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일찌기 고향을 버리고 얻은 나의 향수병이 염불가락을 오선지 위에 쉽게 뿌려주었다.

그후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유학중에 아버님은 열반하셨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식만 들어야 했다. 아버님의 공덕으로 유학을 마친후 이십대의 나이에 학교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다.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자신보다는 제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 하였으며 친구로서 선배로서 보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접근하도록 노력하였다.

우연한 기회에 음악에 열의가 있으신 수법스님, 정덕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파랑새 울고"(초파일 송가)를 계기로 찬불가를 작곡하기에 이르렀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성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게재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그룹으로 周易 강의합니다

易은 훌륭한 철학서인 동시에 占書이기도 한데 소리에 응하는 메아리처럼 미래에 야기될 사태를 정확히 예고하는 無上의 인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정:3개월
전화:(02) 723-5665
※지방도 출장지도합니다.

본지 50호 14면 봉원사 광고 중 (주요 무형문화재 제50호 박송암 스님)을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박송암 스님)으로 바로 잡습니다.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잉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 · 병풍 및 액자화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 · 지방 · 외국 어디나 그림만 보는 표구작품을 배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528(우만)

불사내용

■ 계명산 석굴암 요사채 시설지
• 석굴암 본존 석가모니 불상 7자 높이, 굴 50평
• 석탑 5층탑 22자 높이
• 관세음보살상 15자 높이
• 아미타불 좌불상 5자 높이
• 요사채 2층 방 6 / 요사채 1층 방 3 (35평형)
• 향후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 증축 계획
• 신설사찰, 신축지 1,000평 내외 양도 가능

※사찰 경내까지 사찰 진입 가능
(서울에서 1시간 이내 거리)

귀의 삼보하옵고
70된 노거사입니다.
본인은 일찍이 불법홍포에 원력을 세운 바 충주 계명산에 사찰건립최적지를 발견하고 일심으로 불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굴본존불, 해수관음, 아미타불, 5층석탑, 요사채가 완공이 되어 최초계획의 70%가 완성되었으나 가장 중심이 될 대웅전 건립을 앞두고 불사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불사완성에 참여하실 스님, 독지가」를 구하오니 인연 닿으신 분께서 연락을 주시면 참여조건을 몇가지로 의논 드리겠습니다.
* 사찰에 주석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연락처 : 0441-851-3866(집:조석) / 0441-853-2896(사찰:12시)

20년 전통의 모범업소
행운 결혼 상담소
(관허 53호)
엘리트 결혼 · 중매
한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평생 반려자를 불자님께 맺어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춘미 합장
문의전화 주간 (02)960-2434
야간 (0343)47-1046
초혼 : 의사, 박사, 판 · 검사, 행정고시 합격자
재혼 :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 해업성혼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관대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 전화 (02)556-3076~7 ■ 팩스 (02)556-3078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기한제5회)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무고무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창안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33〉

道安法師 遺誡九章 (도안법사 유계구장) ④

其六曰 卿已出家 捐世形軀
기육왈 경이출가 연세형구
當務遏情 泥洹合符 如何變動 不樂閑居
당무갈정 니원합부 여하요동 불요한거
經道損耗 世事有餘
경도손모 세사유여
淸白不覆 反入泥塗
청백불리 반입니도
過影之命 或在須臾
과영지명 혹재수유
地獄之痛 難可具書 今故戒勖 宜崇典謨
지옥지통 난가구서 금고계려 의숭전모

그 여섯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니 세속의 형상과 몸을 버린 것이다.

마땅히 뜻을 완통 기울여 니원(니르바나)에 부합하기를 힘써야 하거늘 어찌하여 (심신이) 요동하며 조용히 살기를 즐기지 아니하는가.

경도를 손상케 하고도 (도는 닦지 않으면서) 세간일이 남아 있고 맑고 깨끗한 길은 밟지 않고 발길을 진흙탕으로 되돌리니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이 목숨은 잠깐 사이라 지옥의 고통은 가히 글로 갖추어 쓰기 어렵나니 이제 짐짓 힘쓰기를 경계하노라. 마땅히 옛 성인들의 살다운 글을 숭상할지어다.

其七曰 卿已出家 不可自寬
기칠왈 경이출가 불가자관
形雖毁陋 使行可觀 衣服雖麁 坐起令端
형수비루 사행가관 의복수추 좌기령단
飮食雖疎 出言可餐
음식수소 출언가찬
夏則恕熱 冬則恕寒 能自守節 不飮盜泉
하즉인열 동즉인한 능자수절 불음도천

그 일곱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니 자신에게 관대치 말라.

형상은 비록 비천 남루하나 행을 볼만하게 하며 의복은 비록 거치나(더러우나) 앉고 섬이 단정하며 음식은 비록 보잘것 없으나 말할 때는 가히 먹음직스럽게 하라 여름엔 더위를 참고 겨울엔 추위를 견디며 능히 제 절개를 지켜 도천을 마시지 말라(도에 어긋난 일을 하지말라) (도천:그 이름이 도둑샘이라 하여 공자가 마시기를 거부한 샘)

不脩之供 足不妄前
불초지공 족불망전
久處私室 如臨至尊 學雖不多 可齊上賢
구처사실 여림지존 학수부다 가제상현
如是出家 足報二親 宗親知識 一切蒙恩
여시출가 족보이친 종친지식 일체몽은
今故誡汝 宜各自敦
금고계여 의각자돈

불초한 공양(법에 맞지 않는 공양)자리엔 망녕되이 나가지않으며 사실에 오래 머물되 지존이 왕림한듯이 하면(남이 안보더라도 행동에 조심하라는 뜻) 배움이 비록 많지 않더라도 가히 옛 선지식과 가즈런할 것(같이 될것)이다.

이같은 출가는 족히 부모의 은혜를 갚고 종친과 아는 이가 모두 은혜를 입게 될 것이므로 이제 짐짓 네게 경계하노니 마땅히 각자 뜻을 두텁게 할지어다.

其八曰 卿已出家 性有昏明
기팔왈 경이출가 성유혼명
學無多少 要在修精
학무다소 요재수정
上士坐禪 中士誦經 下士塔能塔寺經營
상사좌선 중사송경 하사감능찰사경영
豈可終日 一無所成
기가종일 일무소성
立身無聞 可謂徒生 今故誨汝 宜自端情
입신무문 가위도생 금고회여 의자단정

그 여덟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나 성품은 (아직) 어둡다. 배움이 많건 적건 중요한 것은 세밀히 닦는데 있다.

상근기는 좌선, 중근기는 송경, 하근기는 절 살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거늘 어찌 종일토록 한가지도 이루는 게 없는가. 입신하고도 이름이 들리지(나지) 않으면 가히 헛 살았다 할 것이라 이제 짐짓 너를 꾸짖으니 마땅히 뜻을 단정히 할지어다.

비록 외모 남루하나 앉고 섬 단정히 하라

其九曰 卿已出家 永違二親
기구왈 경이출가 여위이친
道法華性 俗服雜身
도법혁성 속복리신
辭親之日 悽愴斷欣 遨爾艷俗 超出埃塵
사친지일 사비사흔 락이절속 초출애진
當修經道 制已爲眞 如何無心 更染俗因
당수경도 제기리진 여하무심 경염속인

그 아홉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니 영영 부모를 거스른 것이다. 도법으로 심성을 개혁하고 속세의 옷을 버렸다.

어버이 하직한 날 한편 슬프고 한편 기뻤으니 아득히 세속과 인연끊고 풍진세상 뛰어 넘으려할진대 마땅히 불법을 닦아 자기를 다스리고 진리의 길 밝아야 하거늘 어찌하여 공부엔 마음이 없어 다시금 세속 인연에 물드는가.

經道已薄 行無毛分 言非可貴 德非可珍
경도이박 행무모분 언비가귀 덕비가진
師友致累 恚恨日殷
사우치루 에한일은
如是出家 損法辱身 思之念之 好自將身
여시출가 손법욕신 사지염지 호자장신

공부길은 이미 희박하고 행동거지엔 터럭만큼도 도라 할게 없으며 말은 귀하지 않고 덕은 가히 보배답지 않으매
스승과 벗에 누가 되고 통한은 날로 성해지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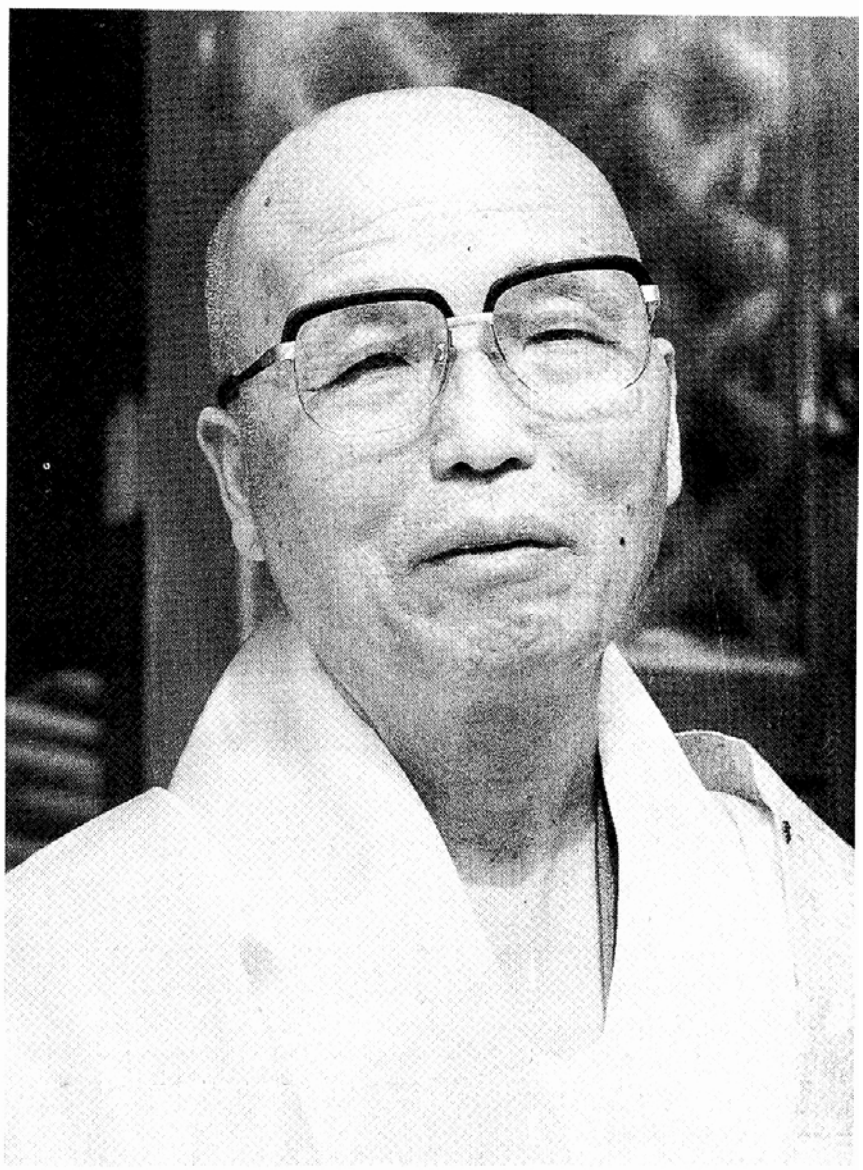
이같은 출가는 법을 훼손하고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스스로 심신을 조히 기를지어다.

龍 眼

★ 지상법석

"믿음이 굳건 해야만 보성스님

〈송광사 율주〉



오늘은 모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조계사에 있다보니 많은 기억들이 스쳐지나가는 군요. 이곳은 저에게 있어 즐거운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이 겪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항상 눈여겨 본 곳이 있다면 뜬어낸지 얼마되지 않은 정화회관인데, 헐려진 것을 보니 흔히들 말하는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용도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하고 전달하는 것이 틀리듯 부처님 말씀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불자라면 한번쯤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하면 한사람 한사람에게 제대로 전달 될 수 있을까 생각한적이 있을 것입니다. '불교가 뭔가'라고 질타성 질문을 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먼저 마음자리가 바르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른신심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몇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법문을 법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많은데, 법문을 듣고 알았다는 사람은 드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교의 행사 가운

"일신의 안위를 위해
예불 올리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쓰레기 통에 버리세요"

데 법사스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법문이라고 합니다. 법문은 법법(法), 문문(門)자를 씁니다. 글월 문(文)이 아닙니다.

진리의 문턱을 드나든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박가나 김가나, 여자건 남자건 나에게 어떠한 연관성을 가졌는가를 한번 깊이있게 돌이켜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얼마나 보람있게 살고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이웃에게 제대로 소개하며, 보이고 있습니까? 단정하게 보여야죠. 그것을 겉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모양은 어떻게 다듬어야 할까요.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장부는 갖춰진 삶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 하늘을 받드는 뜻(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해서 마냥 따라 할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걸음 물러서서 좀 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자리에는 대대로 불교를 믿고 있는 집안의 불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다가 흔히들 말하는 개종을 한 사람이 어떤 스님이 조계사에서 법문을 한다고 하니 한번 참여해 보자는 뜻에서 오늘 여기 오신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발점은 누구나없이 다 신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신심은 도의 근원이요. 진리의 근원이며, 공덕의 모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지극히 성실하고, 지극히 착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분이 신령스럽고 신비스러운 힘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는 전혀 못 따라 갈 것입니다. 부처님은 누구든지 스스로 구체적인 모든 것이 갖추어진 보배로운 역량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천상을 비롯한 다른 세상을 가서 살더라도 그 인간의 근본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근본에 대해 '있다'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의 습관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좇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아집에 싸여 근본을 잃고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40년전만해도 한강물에 뛰어 들어 목욕을 하고, 목마르면 한강물을 떠서 마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없습니다. 그 물을 그렇게 오염되게 한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인 우리가 아닙니까. 잘 아실것입니다. 삼재 중에 제일 무서운것이 인재입니다. 환경오염은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들 사는 공간을 죽이는 일입니다. 삼재가 아닌 이제는 사재입니다. 인재라는게 하나 보태어져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다, 행복을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찾고 있는지, 괴로움을 찾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법회에 가 보면 젊은이보다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손자나 아들들이 "할머니 오늘 절에 뭐하러 가지요"라고 질문을 할때 할머니는 나름대로 절에 가는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절에 간다"고 대

마음이 열리면
天堂도 보이지요.

시인 윤지원 스님이 산문 밖 우바이에게 보내는 산사의 편지



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오랜 세월과 더불어 많은 사연을 동반하게 됩니다.
누구나 곡진한 사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듯이.
구름을 벗하고 산에 깃들어 사는 수행자에게도 닦아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情이란 것이 있지요 —본문 중에서—

산문 밖 우바이로부터 거듭되는 서신을 받고 출가 승려로서 인간적 사랑과 그리움, 연민, 고독과 고뇌, 번민, 원망,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추억, 깨달음, 현실과 영원 등을 묻고 진솔하게 답한 내용들이다. 산사의 골 깊은 운치와 서정어린 문체로 아름답고 평안한 마음을 열어주는 지혜의 보고이다. 지금 전국 서점서 절찬리 판매 중!

신국판 / 300쪽 / 값 6,000원

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17-12
전화 : 02) 352-6406~7
팩스 : 02) 389-3262

도서출판 삼보

도서총판 운주사
전화 : 02) 720-9372~3
팩스 : 02) 723-0646

대중불교는 옳지못한 것을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바른것을 더욱 바르게 펴는 일을 함께 합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은소리
불가의 잣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쇠북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당이야기, 불교와 민속, 업과 문화, 메사지를 찾아서 …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대중불교

정기구독문의: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

지상법석 ★

지혜와 용기 생깁니다"

내가 나의 중생심을 제도한다는 의지로
'게으르지 말자' 끊임없이 정진하십시오

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신상 안위를 위해 예불하는 어리석음을 오늘 부터는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요.

남을 따라 절에가거나 남을 위해 찾지 마세요. 이웃사람이 지게짐 지고 시장보러 가니까 지게짐 짊어지고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요즈음 송광사에는 심심찮게 외국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요새는 불교가 국제화 된 것이 분명한 듯 합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스님네들 가운데에는 '한국 불교가 세계에서 제일이다' 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물안의 개구리를 못 면하고 있는것입니다. 신도들도 외국에 나가보니 '한국불교가 최고더라' 고 말합니다.

은 바른 신심을 갖고 있는 불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절에는 평소에 노력하지않고 목마를때 우물을 파듯이 수능시험합격기도다 뭐다해서 절에 와서는 그야말로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이 몸은 무상한 것입니다. 평소 같은 마음인 평상심이 필요합니다. 덧없는 존재로 언제 어느때 어떻게 되려는지 짐작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을 잘 만들어서 '내가 오늘은 헛되지 않게 지내야지' 하는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요즘은 책이 많이 나오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말을 할때 미사여구를 자주 사용 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말 가운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라고 합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몸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눈으로써 침략을 당하고 귀로 침략을 당하고 코로 당하고 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집에서 부인이 해주는 밥은 맛이 없으니 외식을 하러 가자고 합니다. 그것은 입이 침략을 받은 것입니다.

내 몸을 내 스스로가 기르는 아량을 가지게 된다면 부처님 말씀, 큰스님네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러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따라, 귀를 따라, 몸을 따라 거러지 노릇을 못 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

터는 노력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심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한 신심은 '자성중생서원도(自性衆生誓願道)' 즉, 내가 나의 중생심을 제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은 내가 한다. 친정이나 이웃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노력해서 내 일은 내가 이룩한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몰랐던, 잊었던 보배를 다시 찾아서 무궁한 복락을 누리기를 나는 오직 바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열반에 드실때까지 '게으르지 말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현행원품에 '나의 뜻은 저 허공이 다할망정 다함이 없으니 끊임없이 수행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2천6백년 세월이 지난 오늘이지만 모든 신도들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가 신심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이어졌을때 힘이생기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굳건한 믿음에서 생깁니다. 이는 부처님이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처님 말씀 내것 만들려는 꾸준한 노력이 신심
환경오염은 人災…근본 잃은 탐욕이 재앙 자초

한국에서는 제일 이라고 해야 밥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 억지로이지만 스스로 칭찬을 해야 불자로서 자부심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좋습니까. 저는 한국이란 국토에서 밥을 먹고 걸어다니지만 양심적으로 하나도 소개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심에 대한 얘기를 나눠봅시다.

우리는 신심이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많이들 갖고 있지만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을 어떻게 하면 내것으로 만들어보나 하는 분은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자가 할머니에게 질문한 내용을 인용 했습니다.

사실 불자들 가운데는 절에 있는 산신각·칠성각을 찾아 다니면서도 '절에 다닌다' 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일주문에 당도해서는 "이절에는 산신각·칠성각이 어디있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합니다.

그런 분이 제가 있는 송광사를 찾아오시면 "산신각·칠성각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대웅전 근처에 안내하시는 분이 있으니 가보세요. 부처님한테 절을 세번하면 아실 수 있을겁니다" 고 말합니다. 좀 짓궂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부처님이전에 칠성각·산신각을 먼저 찾는것

데에서 멎마디가 나에게 다가왔는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법문을 마치고 나가면 신도분들이 "스님, 오늘 법문 잘 들었습니다" 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대목이 좋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모두들 대답을 못 합니다.

"스님, 아까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 의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요. 시간을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드물어요.며우기 절에 와 아무개 큰스님을 뵈었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스님을 관상장이로 만들어 버리죠. 당황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일은 내가 더 잘 알아' 라는 것과 같습니다. 깊이있게 그 물음을 따라 그 진원지를 차근차근 물어들어가 보면 별것 아닙니다. 내 일을 내가 관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와 나는 어느때에 두터운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소견이 들만하니 살 날이 몇일 안 되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며칠이나 자신있게 살다가는지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무(無)

> "이웃의 어리석음을
> 바꾸겠다는 마음이 신심입니다
> 나 아니면 누구도 먼저하지 않습니다
> 내가 먼저 수행정진 할때
> 한국불교는 희망적입니다"

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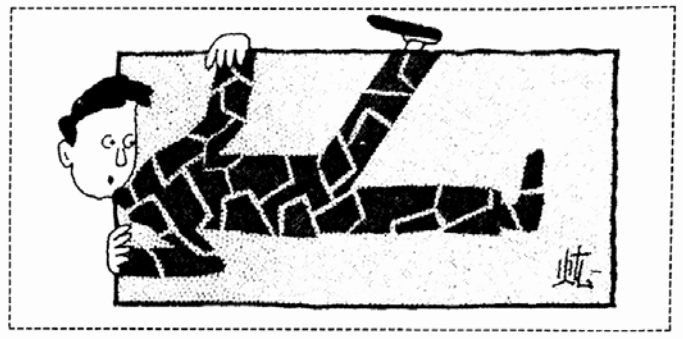
'여러분 신심을 가지십시요' 라고 하지마는 내가 나를 포기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됩니다.

이 몸은 얻기도 어렵지만 법문듣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인과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하게 원인과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실하게 실천하며 노력하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내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밥은 오래오래 씹을 수록 맛이 납니다. 그렇듯 노력을 하면 됩니다. 오늘부

우리는 분명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제자로서 도리를 다 할 수 있나를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 몸이 다하고 이 뜻이 다할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부터 정신을 차려서 내가 오직 나를 찾는다는 결심을 해 한국불교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럴때만이 한국불교는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어리석음을 바꿔주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바로 신심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성실히 정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아갑시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44

양 형 진

상의상대(相衣相待)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생명체를 만나게된다. 그 생명체들은 생명체가 아닌 것과는 좀 다른 특징들을 지니며 살아간다. 그들은 우선 종족 번식을 위하여 생식작용의 기능을 가지며, 개체의 성장이나 생명 유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신진대사 작용을 한다.

신진대사란 간단히 말한다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외부에서 섭취하고 생명 활동의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생리과정이다.

물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생명활동에 필요한 자유에너지(free energy)를 외부에서 끌어다 쓰는 과정이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경우에, 이 자유에너지의 근원은 궁극적으로는 예외없이 태양이다.) 그리고 신진대사 과정은 이러한 자유에너지의 섭취뿐만 아니라, 노후된 우리 몸의 구성 요소들을 교체해가는 과정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나' 라는 이 몸은 외부에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이 공급받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이시키기 위하여 외부의 산소를 끌어들여 호흡하여야 하는 존재이며, 몸의 구성 요소를 쉴 새없이 외부와 교체해 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나' 라는 존재는 '외부' 와의 밀접한 연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나' 이고 어디까지가 '나' 의 외부인가? 우선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 몸 속에 잠시 머물다가 빠져 나가는 음식물이나 공기 같은 것을 내몸이라고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나의 폐나 위를 들락거렸던 그 많은 분량의 공기나 음식물이 다 내 몸이어야 하며, 그러한 음식물이나 공기를 이루었던 원소들은 다른 사람의 음식이나 호흡에 쓰였을 것이므로 나의 몸과 너의 몸의 구분은 없어지고 만다.

이와는 달리 그러한 음식물이나 공기 같은 것을 내몸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근육이나 내장, 혈액등 그 모든 것도 다만 나에게 좀 오래 붙어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교체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나의 몸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즉 내 몸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어느 경우에서나 외부와 구별되는 '나' 라는 존재를 명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또한 공간상에서 어디까지를 '나' 라는 존재를 명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또한 공간상에서 어디까지를 '나' 라고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 라는 존재는 자성(自性)을 가진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중무진(重重無盡)한 인연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것 뿐이다. 또한 어떤 인연으로 어떤 개체가 이루어졌다 해도 독립적으로 개체의 생명이 영위될 수 없으며, 끊임없는 외부와의 접촉에 의해서만 생명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나' 는 '나' 아닌 것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상의상대(相衣相待)라는 존재양식이다. 이러한 상의성이 생명체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상의성이 생명체에게만 작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우주의 모든 사물이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나' 라는 존재는 수많은 인연의 복합체
'이것있어 저것있다' 일체법 성립 원칙

이를 불교에서는 "저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생하므로 이것이 생한다. 저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저것이 멸하므로 이것이 멸한다" 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자성이 없이 오직 인연의 화합으로 잠시 이루어지는 것 뿐이므로 무상(無常)이다. 다시 말하면 연기(緣起)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용수보살은 중론 제8장 觀作者品 제12게에서 "업(業)으로 인하여 작자가 존재하고, 작자로 인하여 업이 존재한다" 고 하여 이러한 상의상대의 연기설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렇듯 무자성하여 상의상대의 연기에 의해서만 일체의 법이 성립하므로 이를 가리켜 공(空)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 인연으로 생겨난 법(法)을 나는 공성(空性)이라고 한다. 이것을 또한 가명이라고도 하며 중도라고도 한다.(衆因緣生法 我說卽是無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 (중론 제24장 18게)" 이를 청목(靑目)스님은 "…여러 인연이므로 무자성이요, 무자성이므로 공이다. 공도 또한 공한 것이지만 단지 중생을 위하여 가명으로 설한다. 유무의 이변을 떠나기 때문에 이름하여 중도라 한다… " 고 해설하였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고형곤 박사의 역작!!

增補版

선의 세계

高亨坤 著

제1권
서양철학과 禪
제2권
한국의 禪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 선교일치의 전통을 밝히고 동양문화의 특색을 이룬 선불교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제3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저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선(禪) 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摩訶止觀
大止觀坐禪法
대지관좌선법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드디어 현대어로 완역

〈마하지관〉은 천태대사가 선수행의 방편을 자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다. 지관법(止觀法)은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편인 동시에 석가세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풍부하게 된 수행방법이다.

天台智者 大師 述
空綠 金無得 註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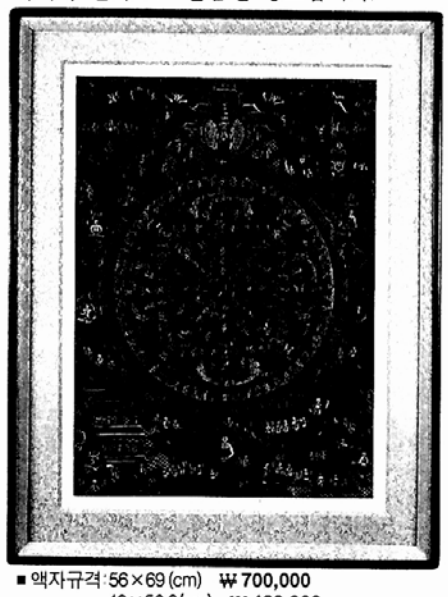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95 미술의 해 기념 불교미술특별전

티베트스님수작
진품 만다라

티베트 독립을 서원하는 스님들께서 광복 50주년과 미술의 해를 기념하여 부처님의 가피와 원력으로 출품한 성보입니다.



■ 액자규격: 56×69 (cm) ₩700,000
48×56.8(cm) ₩480,000

입체손자수
해수관음도

불교사상 최초로 출품한 입체손자수로서 한 올한올 수만번의 손놀임으로 완성한 불심과 공덕의 성품입니다.



■ 액자규격: 68×113.6(cm) ₩330,000

고은 불교 대하소설

두 사람의 나그네 길

"아니! 스님께서!"

라고 파현이 그의 큰 눈망울을 더욱 크게해서 놀라는 것이었다.

바로, 그가 기어이 찾아야겠다고 다짐한 수월을 쌀쌀한 이른아침의 무서리 마당에서 만나게 되다니.

"어찌 객점의 빗자루를 쥐는 신세가 되었는가?"

벌써 수월은 무욕도의 수행시대와 달리 남다른 풍모로 달라져 있었다. 파현 따위를 대번에 눈아래에 두고 아주 자연스럽게 반말을 던지는 것이었다. 아무려나 반갑기 그지없었다.수월은 파현이 울타리 밖의 행길까지 착실하게 쓸기를 마칠 때까지 객점 앞의 하얀 서리에 덮힌 빈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다.

"밥값은 다 치루었지?"

"그런 셈입니다."

라고 파현이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겠는가?"

"무엇을 하다니요. 수월스님을 찾아나선 길입니다."

"다시 섬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아닙니다. 스님을 따라 조선팔도를 다닐 작정입니다."

"금강산에라도 들어갈 생각은 아닌가?"

"딱히 금강산을 비껴갈 일은 아니로되 그곳도 스쳐가야지 그곳에서 죽 박혀 살 생각이라면 무욕도 도량이나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다를 바는 좀 있겠지. 금강산 신계사(神溪寺) 아스라히 거기에는 흰 눈썹이 다섯치(五寸)를 넘게 뻗친 회월당(晦月堂)이라는 도인이 계시다니 무욕도 보살 따위보다는 요망을 떨지 않겠지."

"…"

"나는 우선 그곳으로 가 그 하얀 다섯치 눈썹 도인과 마주 앉아볼 작정이라네."

파현은 이런 수월의 뜻에 저으기 실망하였다. 그는 어디 한 군데를 목적지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무욕도 산꼭대기 움막에서 수월이 탁 내뱉은 말에 "여기도 시방법계(十方法界)를 다 포함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 그러나 나는 이승에서라도 온 세상 땅끝까지 바다끝까지 떠도는 공부를 하고 살아… 이 몸의 사대(四大)가 다 흩어져 한 오리 연기의 꼬리로 사라질 때까지…"라 한 적이 있다.

그러던 수월이 금강산으로 가는 길임을 밝혔을 때 파현의 실망은 당연한 것이었다.

한가지 의아한 것은 그가 금강산으로 가기로 작정한 바라면 왜 이제까지 수원 언저리 밖에 나아가지 못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였다.

파현이 물었다.

"여기까지 오시는 걸음이 왜 더디셨습니다?"

그때에야 수월이 파현이 묻는 의도를 알아차렸다.

"나도 파현스님처럼 이 산하대지를 떠돌며 갖가지 경계에 부딪치고 싶었지. 그래서 남도땅 해남 토말(土末)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탐라도(耽羅島)로 건너가려했지… 그런데 배가 떠난지 얼마되지 않아 갑자기 과풍(怪風)이 일어나 그만 배가 난파한 지경에 겨우 널조각 하나를 물속의 다른 사람과 서로 다투어 가지려다가 내가 죽기를 작정하고 그것을 양보하고 가라앉았지. 헤엄치기를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헤엄칠 팔다리가 없는 느낌이었지… 그렇게 가라앉아 버렸는데 밑에서 나를 받쳐 올라오는 것이 있었어…"

"…"

"그것이 무엇인줄 아직도 몰라. 내가 기절한 상태였으니까."

난파한 뒤의 수월은 해남 앞바다의 작은 섬에 눌혀져 살아난 것이다. 그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섬의 남녀노소였다. 수월이 의식을 회복하자 이제까지 숨을 쉬도록 애를 쓴 섬의 남장네가 쉬는 동안에 "푸우"하고 수월의 승룡이 터졌고 팔뚝의 기맥이 통하였다.

"중이 산중에 있지 않고 물에 나오니 이런 꼴이지!"라고 그를 살려낸 섬의 남장네가 짙은 수염을 쓸어대며 통명스럽게 말하였다.

그 섬에서 비린 생선과 젓갈 따위의 반찬에 비록 보리밥이나마 고봉밥으로 대접하는 인심을 뒤로 하고 도로 해남땅에 건너온 것이었다.

"내 복에 무슨 탐라국 신선이련고."

라고 그는 토말 포구에서 두말할 것 없이 북쪽으로 향하였다.

다만 전라도 정읍 내장사에서 큰 불공이 들어와서 마침 그곳의 객승으로 있다가 그 불공에 동원된 뒤 보시금을 받아 빈 털털이를 면했던 것이다.

그 길로 내장산 골무렵의 핏빛 단풍을 보고 내려와서 내내 걸음을 놓았으니 그 넓은 들녘의 가을걷이가 끝난 뒤의 나락가리 풍경은 하늘과 땅과 사람 그리고 참새 때 따위가 다같이 상즉(相卽)하는 광화 그것이었다.

그렇게 정 땅은 고장을 지나 곰나루를 건너 계룡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공주 차현(車峴)을 넘어 수원성에 이르렀던 것이다.

굳이 생각하자면 수월은 늦게 무욕도를 탈출한 파현을 만나기 위해서 뒷걸음질친 셈이기도 하였다. 어디 가서도 얽매는 것(繫道成滯)이라면 굳이 여기저기에 나타날 일도 아니건만 그러나 수행자가 정작 대중에 의지하는 일에서 떠나 자고 깨는 일을 오로지 저혼자 이어가는 나날의 공부는 쉬운 바가 아니다.

그야말로 한 소식을 얻은 사람의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깊은 산중의 비바람치는 바위 위에서나 폭포소리에 귀가 멍멍해지는 그 불기운 가득한 곳에 앉아 삼매(三昧)에 드는 수련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세상의 저자와 촌락을 떠돌며 하는 행선(行禪)이 아니던가.

수월은 이번 탐라행의 실패로 말미암아 아직 그에게는 세상을 떠도는 자유자재로서의 공부는 이르다고 판단하였다.

그만큼 그는 자신에게 철저했던 것이다.

"종지(宗旨)를 뛰어넘을 일이야! 그러자면 나는 아직 멀었어… 종지를 뛰어넘지 않았다.

수원 북문 밖 울창한 소나무숲 목아지고개 밑에는 괴나리봇짐이나 등짐장수 그리고 바리를 실은 말과 나귀들이 웅성대고 있었다.

전날 목아지고개에서 큰 봉물짐이 털리고 대갓집 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하였다. 과연 목아지 고개라는 이름이 을씨년스럽게 걸맞았다.

그 들의 봄안 가운데서 빈 봄인 운수승(雲水僧)일지라도 함께 걸음을 멈추었다. 고개 밑의 마방에 딸린 국밥집이 있지만 그 집은 그들의 차례까지 되지 않았다.

수월이 성큼 길을 나섰다.

"가세."

"산짝이 아직 숨어있어서 수원성 범골이나 포졸이 얼씬도 못하는 형편이라 합니다"라고 파현이 주저하였다.

"가세."

라고 수월이 벌써 저만큼 가고 있었다.

"금강산 회월당이라!"

이어서

"금강산 신계사 회월당이라!"

다음날 그는 계룡산 신원사 암자를 떠나 그 길로 걸음에 걸음바람을 더하였다.

수원 남문에서 북문을 지난 수월과 파현은 만난 반가움 다음으로 함께 길을 걷는 자의 일치때문에 거의 생각도 비슷해지는 것이었다. 물론 파현이 수월의 기운을 따르게 되었지만 파현으로서는 굳이 금강산 한 군데를 작정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으나 일단 거기까지는 수월과의 동행을 미더하지 않았다.

수원 북문 밖 울창한 소나무숲 목아지고개 밑에는 괴나리봇짐이나 등짐장수 그리고 바리를 실은 말과 나귀들이 웅성대고 있었다.

전날 목아지고개에서 큰 봉물짐이 털리고 대갓집 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하였다. 과연 목아지 고개라는 이름이 을씨년스럽게 걸맞았다.

그 들의 봄안 가운데서 빈 봄인 운수승(雲水僧)일지라도 함께 걸음을 멈추었다. 고개 밑의 마방에 딸린 국밥집이 있지만 그 집은 그들의 차례까지 되지 않았다.

수월이 성큼 길을 나섰다.

"가세."

"산짝이 아직 숨어있어서 수원성 범골이나 포졸이 얼씬도 못하는 형편이라 합니다"라고 파현이 주저하였다.

"가세."

라고 수월이 벌써 저만큼 가고 있었다.

> 깊은 산중의 비바람치는 바위위에서나 폭포소리에 귀가 멍멍해지는 곳에 앉아 삼매에 드는 수련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저자와 촌락을 떠도는 행선이 아니던가





50

수원성에서 만난 수월과 파현은 금강산 회월당 도인을 찾아…

"그것이 산중에 있지 않고 물에 나오니 이런 꼴이지!"라고 그를 살려낸 섬의 남장네가 짙은 수염을 쓸어대며 통명스럽게 말하였다.

그 섬에서 비린 생선과 젓갈 따위의 반찬에 비록 보리밥이나마 고봉밥으로 대접하는 인심을 뒤로 하고 도로 해남땅에 건너온 것이었다.

"내 복에 무슨 탐라국 신선이련고."

라고 그는 토말 포구에서 두말할 것 없이 북쪽으로 향하였다.

다만 전라도 정읍 내장사에서 큰 불공이 들어와서 마침 그곳의 객승으로 있다가 그 불공에 동원된 뒤 보시금을 받아 빈 털털이를 면했던 것이다.

그 길로 내장산 골무렵의 핏빛 단풍을 보고 내려와서 내내 걸음을 놓았으니 그 넓은 들녘의 가을걷이가 끝난 뒤의 나락가리 풍경은 하늘과 땅과 사람 그리고 참새 때 따위가 다같이 상즉(相卽)하는 광화 그것이었다.

그렇게 정 땅은 고장을 지나 곰나루를 건너 계룡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공주 차현(車峴)을 넘어 수원성에 이르렀던 것이다.

굳이 생각하자면 수월은 늦게 무욕도를 탈출한 파현을 만나기 위해서 뒷걸음질친 셈이기도 하였다. 어디 가서도 얽매는 것(繫道成滯)이라면 굳이 여기저기에 나타날 일도 아니건만 그러나 수행자가 정작 대중에 의지하는 일에서 떠나 자고 깨는 일을 오로지 저혼자 이어가는 나날의 공부는 쉬운 바가 아니다.

그야말로 한 소식을 얻은 사람의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깊은 산중의 비바람치는 바위 위에서나 폭포소리에 귀가 멍멍해지는 그 불기운 가득한 곳에 앉아 삼매(三昧)에 드는 수련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세상의 저자와 촌락을 떠돌며 하는 행선(行禪)이 아니던가.

수월은 이번 탐라행의 실패로 말미암아 아직 그에게는 세상을 떠도는 자유자재로서의 공부는 이르다고 판단하였다.

그만큼 그는 자신에게 철저했던 것이다.

"종지(宗旨)를 뛰어넘을 일이야! 그러자면 나는 아직 멀었어… 종지를 뛰어넘어

록 애를 쓴 섬의 남장네가 쉬는 동안에

"화상은 금강산이나 가보소. 그곳 신계사 회월당하고 씨를 한 관 받여보소."

그때 수월은 괜히 번쩍 눈이 떠졌다.

"금강산!"

이어서

"금강산 회월당이라!"

"금강산 신계사 회월당이라!"

다음날 그는 계룡산 신원사 암자를 떠나 그 길로 걸음에 걸음바람을 더하였다.

수원 남문에서 북문을 지난 수월과 파현은 만난 반가움 다음으로 함께 길을 걷는 자의 일치때문에 거의 생각도 비슷해지는 것이었다. 물론 파현이 수월의 기운을 따르게 되었지만 파현으로서는 굳이 금강산 한 군데를 작정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으나 일단 거기까지는 수월과의 동행을 미더하지 않았다.

수원 북문 밖 울창한 소나무숲 목아지고개 밑에는 괴나리봇짐이나 등짐장수 그리고 바리를 실은 말과 나귀들이 웅성대고 있었다.

전날 목아지고개에서 큰 봉물짐이 털리고 대갓집 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하였다. 과연 목아지 고개라는 이름이 을씨년스럽게 걸맞았다.

그 들의 봄안 가운데서 빈 봄인 운수승(雲水僧)일지라도 함께 걸음을 멈추었다. 고개 밑의 마방에 딸린 국밥집이 있지만 그 집은 그들의 차례까지 되지 않았다.

수월이 성큼 길을 나섰다.

"가세."

"산짝이 아직 숨어있어서 수원성 범골이나 포졸이 얼씬도 못하는 형편이라 합니다"라고 파현이 주저하였다.

"가세."

라고 수월이 벌써 저만큼 가고 있었다.

"여보소 대사! 저승갈인 줄이나 알고 가소."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할수 없었다. 파현도 그런 수월을 뒤따랐다. 그러자 한양 남대문 안 노모를 어서가서 뵈어야한다는 효성의 중년짜리도 두 사람을 급히 따라붙었다.

술에 취해있는 늙은 포졸 하나가 "저 상투도 없는 물건들이 겁도 없이 길을 나서는 것은 제 정신이 아닐 터이지"라고 방관하였다.

세 사람은 제법 비탈진 고개의 으슥한 숲길을 올라갔다. 이윽고 고개마루턱에 이르렀다.

찬 기운의 바람자락이 띠를 두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긴장이 대기하고 있던 산적은 고개를 넘어가는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허어! 이 목아지고개 숲에는 무명수(無明樹)도 울창하거니와 보리수(菩提樹)도 울창하도다."

목멍 번뇌의 나무와 보리 지혜의 나무의 대칭(對稱)을 없애어 그것을 하나로 말하는 뜻이겠다. 물론 수월이 한 말이었다.

두 운수승을 따라온 효자가 한 마디 남겼다.

"사람들은 정작 무서워해야 할 대는 무서워하지 않다가 변을 당하거나 무서워할 까닭이 없는 곳에서는 지레 겁을 먹고 몸을 부들부들 떠나봅니다."

그런 말에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그들 세사람은 한양성 밖의 노들나루를 건널 때까지 그 1백릿길을 도무지 입을 꽤맨 채였던 것이다.

말이 그렇게도 쓸모없을 줄은 마치 불탔던 셈이었다.

남대문은 웅장하였다.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잔망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어서 가보게."

라고 그때에야 수월이 동행자를 떼어놓는 것이었다. 도성(都城)에는 승려가 출입할 수 없으므로 수월과 파현은 남대문 밖에서 이태원 비탈의 빈 밭길을 넘어갔다.

거기서 미아리를 돌아가자면 일찍 찾아온 추위에 맞서 더운 몸이 될 만큼 걸음을 재촉해야 하였다. 듣는 바 없이(無聞). 듣는 바 없이.

그림 · 조향숙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다!
'그대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우는 인생의 큰 스승
오쇼 라즈니쉬! 그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 탁월한 삶의 인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운다.
어떠한 집착도 편견도 없는 무상도의 세계, 구름 너머 저멀리, 깨달음의 빛으로 인도하려는 그의 노력이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깊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한다

오쇼 라즈니쉬' 그는 참으로 무성한 법구경이라는 말을 완전히 깨어 없애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그의 법구경 강의를 통해 고대와 붓다의 시대로 돌아간다. 스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언어, 방금 건져올린 물고기처럼 생동감 넘치는 삶의 지혜, 그 무한정의 감동이 우리를 압도한다.

법구경 (上)(下)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값 6,500원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112 가지 명상비법 무삭제 완역공개

인생을 무엇답하게 살 것인가? 풍요하게 살 것인가?
복이란 명혼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고민이 없이 살아온 무지와 무관심, 무감각에 빠져 버린 메마른 의식과 타성한 삶의 태도에서 이젠 깨어나십시오!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완역본!

탄트라 비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들을 모르다면 세상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자랑 높은 세계 유희가 바로 선 禪입니다
이 존재들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범입성 「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넓은 옷섶어리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지다 그 몸에 붙여줄 것이다

임 RINZAI 제
조 JOSHU 주
마 MATZU 조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각권 값 5,000원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대표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불교아동문학회 글짓기공모 운문 최우수상

나의 부처님

오 전 민〈서울 은석국교 1년〉

슬픈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부처님 귀는
커다란가 봐요.

나쁜짓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해주기 위해서
부처님 가슴은
넓으신가 봐요.

언제나
웃고 계시는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이 좋아요.

불교아동문학회 글짓기공모 운문 대상

새벽 예불

변 보 경〈전남 광양제철국교 6년〉

"뎅~뎅~뎅~" 주지스님과 법사스님의 새벽 예불 기도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다. 오늘 새벽예불은 6학년과 5학년이 모두 참석하게 되었다.

〈중략〉우리가 조금 늦게와서 늦게 예불을 드린 것 같다.

새벽 예불문과 반야심경, 여러사람의 혼을 위로하는 무상게 등을 하였다. 염불과 범종소리를 듣고 있자니 자꾸 내 눈을 덮치려던 눈꺼풀이 날 아주 큰 눈으로 만들듯이 치솟은 것 같다. 하지만 자꾸 눕고 싶은 것은 참을수가 없었다. 그래도 여러 동생들이 보고 있고 여러 친구들도 다 하고 있어서 차마 몸으로 나타낼 수 없었다. 그리고 언제나 내 눈앞에 계시면서 근엄하게 앉아 계시는 부처님 앞에서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게 내 머리속에 떠올랐다. 비록 친구와 몇마디 이야기를 하면서 예불을 드렸고 졸린 눈과 눕고싶은 마음으로 예불을 드렸지만 내가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인 새벽4시에 이렇게 부처님께 새벽 예불을 드린 것만으로 나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그 때는 부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정성스레 예불을 드리겠다. 앞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약속을 하나 하고 싶다. 부처님께 많은 지혜와 슬기를 얻어서 정말 좋은 불교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이다.

불교아동문학회 글짓기공모 산문 최우수상

부처님과 하나님

경 주 선〈서울 유석국교 4년〉

나는 교회에 다니고 싶을 때가 있다.

우리 집안은 불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엄마께 말하였다.

"엄마! 나 교회 보내주라! 동네 친구들 다 간단 말이야!"

"안돼!"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는지 눈이 갑자기 커지셨다.

난 어머니께 여쭈어 보았다.

"우리 가족은 다 불교잖아. 그러니까 너만 교회에 다니면 어떡하니?"

나는 속상하여 아무말도 못 하였다.

"… …"

일요일날 교회 가방을 메고 교회로 가는 친구들이 부러워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나윤아! 교회 다니는거 재미있니?"

"아니! 난 오히려 니가 부러운데!"

말 한마디를 남기고 교회로 뛰어갔다.

그런 자 엄마께서 뛰어오시며 말씀하셨다.

"주선아! 엄마랑 목동 큰 절에 가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그때 까만 뉴그렌져가 내 앞에서 멈추었다.

난 놀래서 엄마뒤로 숨었다.

"엄마야!"

번호판을 보니 2866이라고 돼있었다. 아빠차였다.

"에이~이 멍청이"

난 내 머리를 쳤다.

"아야!"

절에 도착하였다.

절에는 사람들이 팥죽을 먹고 있었다.

나는 팥죽을 좋아한다.

"나이스"

이제 생각해 보니 교회에서는 매일 무엇을 사준다고 하여 내 마음이 끌려간 것 같다.

아이스크림 같은 것 말이다.

내 생각이 잘 못된 것 같다.

나도 이제부터는 절에 가겠다.

"엄마! 교회 안다닐래!"

"왜~?"

"팥죽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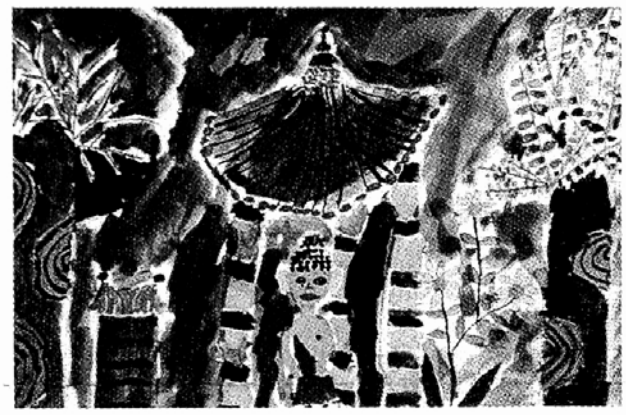
스님도 깔깔, 손님들도 깔깔대고 웃으셨다.

불교어린이 미술·글짓기대회 수상작 지상중계

"동심에 비친 부처님 세상"

곱게 물든 단풍이 산사를 단장한 가을날.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한 '불교아동미술잔치'와 까치마을 '제1회 어린이 백일장', 한국불교 아동문학회 '전국불교어린이 글짓기 작품공모전'이 지난달 도선사와 용인가족공원에서 열렸다.

파란하늘 만큼이나 맑은 동심을 화폭과 원고지에 담아낸 이번 행사의 수상작들을 소개한다.



조계종 아동미술잔치 대상

유 나 영
〈서울 신강국교 3년〉

까치마을 '어린이 백일장' 대상

우리는 불교가족

조 형 래〈서울 은석국교 6년〉

교정에는 감이 익어가고 모과 향기가 그득 배어있는 불교학교인 은석국민학교. 우리학교 안엔 법당이 하나 있다. 향이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법당에서 꾸중을 듣거나 화가 났을 때 부처님을 뵈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우리 식구는 네식구인데 두개파로 나뉘어져 있다. 아빠와 누나는 기독교, 나와 엄마는 불교이다. 누나가 기독교가 좋다니 아빠가 따르셨고, 엄마는 산속에 조용한 절이 좋다고 내 편이시다.

이제 남북도 통일하려 할 때인데, 우리 집 종교도 통일을 이루어야겠다.

누나를 잘 설득하면 아빠는 저절로 오실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선 마음을 비우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 누나를 감동받게 하여 아빠와 누나의 생각이 달라지길 기대한다.

우리 네식구가 나란히 법당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를 깨우칠 그 날을 환한 연꽃속에 미소를 담고 조용히 웃고 계시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기다린다.

까치마을 '어린이 백일장' 금상

이웃속의 부처님

오 수 진〈서울 양강국교 6년〉

햇빛이 산넘어
얼굴 내미는 밝은
일요일 아침
즐거운 맘으로
절에 간다

그런데 그런데
저기에 있는
두 아이
한 아이는 한대 맞고
한 아이는 한대 콩

그런데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다
그 아인 한대 콩
두대 콩, 세대 콩

계속 콩콩 맞아도
가만히 있구나
이상하기도 하다

그 아이는 싱글싱글
웃음 지으면서
뒤돌아 간다

난 난 곰곰히 생각하니
부처님은 법당엔 없다

바로 우리의 옆에
작은 세상속에 있는
아름다운 눈빛의
우리다.

만 화

法句經 법구경

* 세속의 장 *
물거품 처럼
세상을 보라
아지랑이 처럼
세상을 보라

이 향 원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간

신국판 / 5,000원

祈禱 기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I.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매우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I. 큰스님 주변 이야기 / II.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III.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윤회담 / IV.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V.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 49재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신국판 / 4,5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법공양문

72년 초판 발행 이후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읽혀온 책.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하고 정확한 번역으로 새롭게 증보 발간하여 다시 선보였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깊은 맛이 우러나는 책으로 마음의 평화와 풍요로움을 안겨다 줄 것이다. 값 5,0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 법문 테이프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법문!

·큰스님 살아오신 이야기 (테이프 1·2)
·마음·마음·마음 (테이프 3)
·오분향을 이루는 공부 (테이프 4)
·참된 회향 (테이프 5)

5개 1세트 값 10,000원

불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값 5,000원

야운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스님이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3 팩스 : (02) 586~9078

효봉법어집 | 문도회 엮음

미발굴 서간·행장 자세히 수록



마지막으로 한말씀 청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군더더기 소리 안할란다'며 "내가 말한 모든 법은/그거 다 군더더기/오늘 일을 묻는가/달이 천강(千江)에 비치니라"는 열반송을 남기고 떠난 님이 법신으로 다시 돌아왔다.

'절구통수좌' '판사중'으로 불리웠던 효봉스님(1887~1966). 절구통수좌라 했음은 40여일 동안 두문불출하며 엉덩이에 피고름이 맺히도록 오직 수행으로 정진했던 전설적인 일화에서 유래한다.

이번에 간행된 〈효봉법어집〉에는 지난 75년에 나온 〈효봉선사어록〉에 발표되지 않았던 수시설법과 서간 행장 출가약력 비문 및 사진자료를 추가했다. 특히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행적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어 효봉스님의 가르침을 생생히 접할 수 있음은 물론 조계종 통합종단 초대종정과 해인총림 방장을 역임한 효봉연구에도 자료적 가치가 크다.

〈불일출판사, 1만5천원〉

화제의 책

기도 | 일타 지음

생활속 기도성취 체험담 소개



사람의 한평생 가운데 마음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조계종 원로이며 전계대화상인 일타스님이 저술한〈기도〉에는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 제자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영험담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전래되는 기도영험담 중에서 감명깊은 20여편을 뽑아 실었다.

저자는 이를 통해 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각 이야기마다 간략한 해설을 붙여 올바른 기도법과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다.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생활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등 6장으로 구성. 특히 '나의 가족·제자의 기도'에는 일타스님 친가·외가 43명의 동시출가 얘기도 싣고 있어 흥미롭다.

〈효림, 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소설 등신불	석용산	문학수첩
2	소설 선	고 은	창작과 비평사
3	방한암 선사	김호성	민족사
4	달마의 제자들	고우영	불지사
5	알기쉬운 불교	편성부	불교방송
6	불타의 가르침	이기영	불교진흥원
7	사찰의 벽화이야기	권영한	전원문화사
8	님의 침묵	한용운	상 아
9	깨달음의 길	거 해	담마간다
10	윤회의 법칙	김성규	큰 산

구입문의:(02)737-0695

저작권법 내년 7월 시행…원작료 '비상'

불서출판계 '발만 동동'

제작비등 비용 15%이상 추가부담

학술서 90% 日서적 번역의존 상태

내년부터는 57년 이후에 발행된 외국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소급 적용, 보호된다. 문체부와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불서출판계에 저작권법 비상이 걸렸다. 외국 저작물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한 87년 이전에 발행된 것은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원작료를 지불해야 한다. 원작료는 미국 일본의 경우 대체로 책 정가의 7%선이다. 여기에 계약교섭비용, 중개인비용을 더할 경우 현재의 제작비보다 적어도 15% 정도 추가부담해야 할 것으로 출판계는 보고 있다. 출판시장불황으로 출판기획 자체를 보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래저래 불서출판계는 이중고를 겪게 된 것이다.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불교학술서 출판사들은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불교학술서의 경우 거의 90% 가깝게 일본출판물의 번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은 저작권법 파고와 출판불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은 불교발전에 꼭 필요한 양서의 출판이라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필자개발에 눈을 돌렸다.

민족사는 93년 인물 사상 역사 문학 예술 등을 아우르는 '한국인의 불교' 시리즈 전6권을 기획하고 필자를 공모했으나 마땅한 필자가 없어 기획자체를 포기했다. 당시 민족사의 필자공모는 적극적인 불서출판의 자세라며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저작권법 개정이 필자개발과 불교학 연구를 부추키는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반응도 나온다. 즉, 외국 출판물의 번역출판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자연스럽게 국내필자에 눈을 돌릴 것이고, 이에따라 불교학 연구와 성과물 생산에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불교학관계 필자가 불교대학이 설치된 동국대학교에 의존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불교학술서 생산층이 엷을 수밖에 없어 이나마도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에대해 민족사 대표 윤재승씨는 "논문으로서가 아니라 불교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저술가 개발이 급선무"라며 "뛰어난 학자라면 본격적인 학술논문은 물론 대중들에게 불교를 전달할 수 있는 쉬운 글도 써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필자는 정확한 문장사용을 통한 뜻 전달이 미숙하다는 것이 출판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또다른 출판인은 "글은 문장력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방대한 자료의 섭렵과 오랜 사고, 정리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성실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책방 여시아문 개관 1주년을 맞이 '님의 침묵' 판본 전시회. 1926년 회동서관 발행 초판본부터 지난 5월 간행된 문학과현실사판까지 모두 85종의 '님의 침묵'이 3일까지 전시된다.

성철스님 법어집 인기 '꾸준'

열반 2주기 '백일 법문' 수행지침서 자리매김

'불교계의 큰별 지다.' 지난 93년 11월 4일 한 일간신문은 성철스님의 열반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애석함을 표했다.

성철스님이 직접 목록을 작성, 감수까지 맡아 펴낸 선림고경총서 37권과 법어집 11권이 스님의 체취와 구도열정을 전해준다.

선림고경총서는 지난 85년 현대인들이 선을 바로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데에 꼭 필요한 선서를 가려내어 알기 쉬운 현대어로 옮긴 방대한 작업으로 93년 벽암록을 끝으로 37권을 완간했다.

우리말로 옮긴 최초의 종합적인 선서집으로 평가되는 '총서'에는, 달마대사부터 나옹스님에 이르기까지 선종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선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법어집은 30여년 동안 펼쳐온 성철스님의 법문 법어 강설 등을 모두 모아 주제와 성격에 따라 11권의 책으로 묶은 것.

법어집 가운데 〈영원한 자유〉와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스테디셀러로 기록되며 스님 열반 이후 더욱 널리 읽히고 있다. 특히 67년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되면서 1백일 동안 한 법문을 정리하여 두 권으로 엮은 〈백일법문〉은 수행자와 불자들의 귀중한 지침으로 꼽힌다.

성철스님을 주제로 다룬 〈스님, 성철큰스님〉(백련문도회, 장경각) 〈우리 옆에 왔던 부처〉(이청, 일요신문) 〈중보러 절에 오지마〉(원정, 서해문집) 등 소설 어록집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일부 책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대해 장경각 편집부장 정길숙씨는 "성철스님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와 애정이 필요하다"며 호기심에 영합하는 출판물의 범람을 우려했다.

이에따라 백련문도회에서는 이미 지난 93년부터 성철스님과 인연이 있는 40여명의 스님을 만나 당시 상황을 기록하는 등 스님 생애의 실체적 조명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리를 진행중이다. 문도회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중 비디오테이프와 자료집으로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님의 침묵' 불어판 신부가 번역 내년 출간



만해스님의 시집〈님의 침묵〉이 프랑스의 한 신부에 의해 프랑스어로 번역돼 곧 출간된다. 번역자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으로 한국에 와있는 매시니 피에르 신부(사진, 한국명 매기석).

현재 번역은 모두 마친 상태로, 한국 국제문화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내년 3월중 프랑스 현지에서 펴낼 계획이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함허 '금강경오가해'

〈금강경오가해〉는 부처가 설한 '없음'과 '비어있음'의 사상을 극도로 축약한 경전인 '금강경'을 여러 조사스님들이 설명한 것으로 조선초기의 고승 함허가 1417년에 펴낸 〈금강경 오가해설의〉를 일컫는다. 그것은 금강경을 가지고 노는 듯한 천진스러움을 보이기도 하고, 금강경을 더 자세하게 뜯어보게 하며, 금강경이란 소재를 갖고 여러 가지로 형상을 지어보이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니, 내가 〈금강경오가해〉를 너무 문학적으로 수용하는 듯해서 머쓱하다. 그러나, 그런들 어떠랴 싶다. 기실 금강경과 달리 〈금강경오가해〉는 문학성이 풍부해서, 공부를 위해 읽기보다는, 그 문학적인 체취, 이를테면 언어 구사의 묘미라든가, 십상전개의 의외성, 풍부한 상징성 등을 맛보는 재미가 있어서 자주 책장을 들추는 경우가 내겐 더 많다, 거기에는 먼저 눈에 뜨이는대로 읽어본다. 그리하면 한때나마 속이 후련해져서, 흡사 답답한 방안에 처박혀 있다가 밖에 나온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그런 기분은 기실 무어라고 형언하기 어렵다.

가령 〈금강경〉의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에 나오는 '마땅히 머문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應無所住而生其心)'라는 말에 대해, 야부는 시로 표현했다. "고요한 밤 산당(山堂)에 말없이 앉았으니/적적하고 요요하기 본래 그대로더라/무슨 일로 서풍은 산과 들을 일깨워서/한 소리 참 기러기가 긴 하늘을 울게 하는가"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함허는 "본래 스스로 동(動)함이 없거늘 어찌 모름지기 동하리오. 모름지기 믿을지어다. 사해(四海)에 물결이 고요하면 용이 숨어 높이 날도다"라고 했다. 이 두 사람의 말은 무슨 내밀한 숨결처럼 서로 교감되어지는 게 느껴진다. 그런 가운데 이 두 사람의 말과 표현의 전거가 되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세계가 그 교감 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는 묘미를 맛보기도 한다.



이 하 석
〈시인〉

행간마다 상징성 풍부·논리치밀

자투리시간에 펴보는 '주머니 책'

종교적인 접근 뿐만아니라, 이런 정서적 감응도 크게 주는 것이 〈금강경오가해〉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불을가득, 법향가득

책방 여시아문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 · 책방 여시아문 개관 1주년 기념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판본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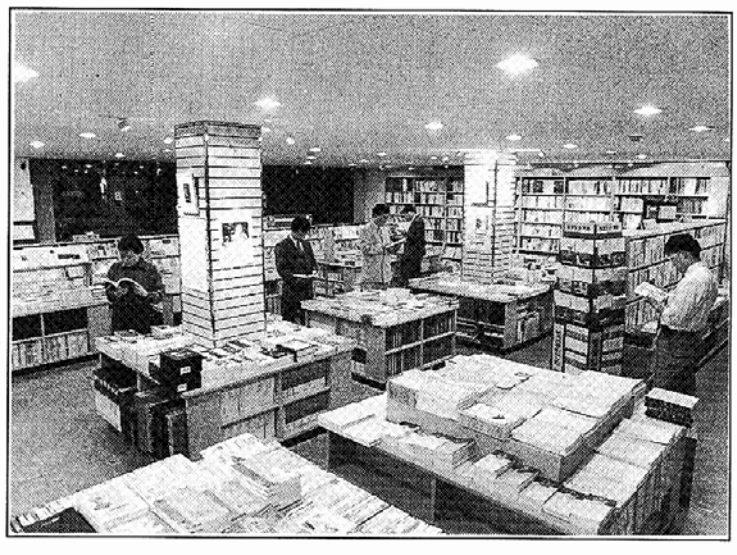
결실의 계절 가을,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은 각각 창간과 개관 1주년을 맞아 만해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판본 총 82종을 전시, 이 가을의 풍요로움에 그 향기를 더하고자 합니다. 만해사상연구회(회장:전보삼)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1926년 회동서관에서 간행된 '님의 침묵' 초판에서부터 최근 1995년 5월 16일 간행된 '님의 침묵'(문학과 현실사)까지 총 82종의 시집이 전시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스님의 사상과 문학 그리고 그 불꽃같은 민족애에 흠뻑 심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침묵' 이야말로 우리 민족 정서의 근간

'님의 침묵'은 1926년 초판 발행 이래 70여년간 82종의 시집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님의 침묵'이야말로 우리의 근·현대사를 이끌어 온 정신적 지주이며 민족정서의 근간임을 나타내줍니다.

간행역사에 따라 '님의 침묵' 참뜻 왜곡·굴절

특히 26년과 34년 등 일제시대에 간행된 두 권의 시집에서 10년 단위로 시대별 시집을 검토해 보면, 근·현대 문법표기의 문제와 거듭되는 간행에 따라 '님의 침묵'의 참뜻이 왜곡·굴절되기까지 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님'과 '침묵' 만해 스님 문학의 대표적 정신

시집 제목이 줄기차게 '님의 침묵'으로(80% 이상) 간행된 것은 만해스님의 문학과 사상을 대표하는 정신이 바로 '님'과 '침묵'이란 것이 면면히 인식되어 왔음을 입증합니다.

■ 전시일정 : 10월 20일 ~ 11월 3일
■ 장 소 : 책방 여시아문
■ 전시판본 : 1926년에서 1995년까지 총 82종
■ 기타 전시물 : 만해스님 영정·만해시비 사진 액자(5점)·'님의 침묵' 전문

찾아오시려면
광화문 운주사 종로구청 현대불교신문사 평화당 인쇄 조계사 안국동 종각역 공평빌딩 종로3가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백제창왕 銘文사리감 발견

능산리유적 목탑터서…봉안시기등 '생생'

백제불교·미술사등 연구 획기적 자료

백제 사찰터로 추정돼온 부여 능산리유적 목탑터에서 백제 창왕(昌王:555~598)의 이름이 새겨진 명문(銘文)이 담긴 사리감(舍利龕:사리를 모시는 감실)이 발견됐다.

이 명문에는 사리를 봉안한 시대, 공양자, 사찰의 건축연대가 확실하게 밝혀져 있어 백제 불교사는 물론 불교미술사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발견된 사리감은 화강석제로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알려진 사리장치이며 불과 20m 떨어진 곳에서 금동용봉봉래산향로가 발견된 바 있어 능산리 사찰터가 백제사 및 불교사 연구의 보고로 떠오르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정양모관장은 지난달 23일 92년부터 연차적으로 발굴작업을 해온 부여 능산리 백제사찰터 목탑지에서 20글자의 명문이 새겨진 화강석제사리감(높이 74㎝, 가로·세로 각각 50㎝)과 소조 불·금동 및 은제고리·유리구슬·금동방울 등 6백여점의 유물이 출토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목탑터의 땅밑 114㎝ 아래에 묻힌 초석 상단에서 발견된 사리감의 양쪽면에는 '百濟昌王十三季太歲在 丁亥妹 ○公主供養舍利'라는 각각 10자씩의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이 명문은 "백제창왕 13년에 창왕의 누이가 공양한 사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정관장은 설명했다.(○자는 현재 해독불가)

정관장은 이번 출토 유물들의 제작연대가 6세기 중엽쯤으로 밝혀짐에따라 그동안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던 유물들의 연대추정이 가능해져 능산리유적은 백제미술사연구의 기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사찰터 초석주변에서 사리감의 조성연대와 비슷한 소조불·금동제고리·금동방울·유리구슬·금실·토제인동꽃무늬장식 등 5백95점의 불교공예품과 장신구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것도 이번 발굴의 커다란 성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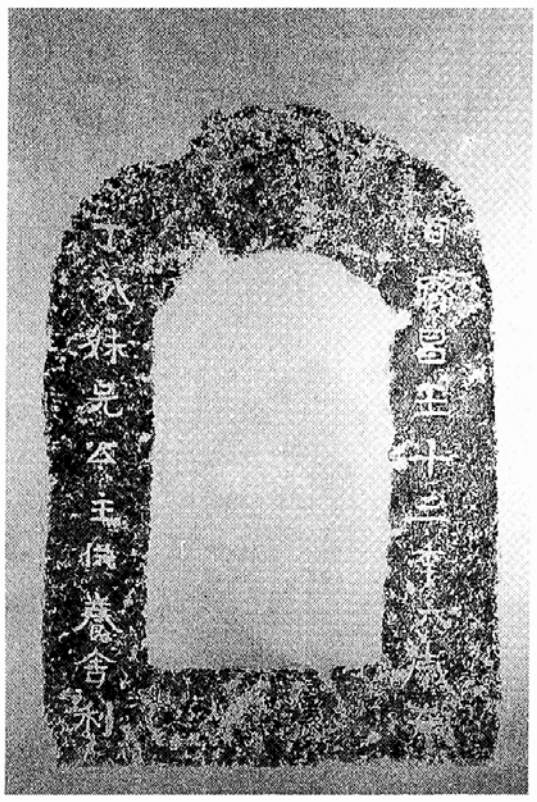
정관장은 또 93년말 이 절터에서 출토돼 고고학 발굴사상 최고의 공예품으로 손꼽혀온 금동용봉봉래산향로도 왕실 기원사찰의 불교의식과 관련깊은 유물임이 뒤확해졌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문명대교수(불교미술문화재불교연구소장)는 "이번 발굴로 백제불교사와 불교미술사연구가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사리감 주변에서 발견된 나한두(羅漢頭).



◇부여 능산리 유적 목탑터에서 발굴된 사리감의 명문탁본.

보물 '용미리 석불입상 2구' 제작연대 조선초로 재고증

고려초(1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보물 제93호로 지정된 경기 파주군 광탄면 용암사 '용미리 석불입상 2구'는 조사결과 조선 세조11년(1465)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문화재 지정 당시 고증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경기도 문화체육과 박홍국 학예연구관이 종래 판독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된 이 석불입상의 발원문을 탁본, 판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연구관은 "석불입상의 하단에 자리한 발원문을 판독해 본 결과 '성화(成化)'라는 명나라 연호가 나오며 이는 세조 11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새로 발견된 명문에는 세조의 명복을 비는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사리성분 분석 '화제'

불자들의 올바른 사리(舍利) 신앙이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사리의 성분과 경도(硬度)에 대한 분석결과가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인하대 분석화학실(실장 임형빈)은 최근 백금요법연구학회(회장 목관호)로부터 사리 1과(顆)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아 지난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름 0.5㎜ 정도의 팥알크기 사리에서 방사성원소인 프로트악티늄(Pa)과 핵융합원료로 쓰이는 리튬(Li)을 비롯, 티타늄·나트륨·크롬·마그네슘·칼슘·칼륨·인상 등 12종이 검출됐다.

임실장은 "사리성분이 일반적으로 뼈 성분과 비슷했으나 프로트악티늄·리튬·티타늄등이 들어있는 점이 큰 특징이었다"고 밝혔다.

또 사리의 경도는 1만5천파운드의 압력에서 부서져 1만2천파운드에서 부서지는 강철보다도 훨씬 단단했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얘기다.

오현스님 '미천골 이야기로' 가람시조 문학상



승려문인 1세대인 오현스님(신흥사 회주)이 시조 '미천골 이야기로'로 제16회 가람시조문학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6일 오후6시 광화문 한글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미천(米川)골 이야기로

강원도 양양 땅 선림원지(禪林院址)에 갔다
한때 천여 대중이 살았다는 말이 있어……
한참을 돌아다보았다 돌아다보았다
돌덩이가 탑(塔)이었나 탑이 돌덩이였나
버려진 하나 복련석(覆蓮石) 손을 짚어 보았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남아야 탑신(塔身)이 되나
절은 허물어졌어도 절은 거기 있었다
한여름 사람사람들 피서를 즐기고 가는
그 옛날 뜨물이 흐르는 미천골 이야기로 왔다

장경각 보수놓고 이견

해인사 전면·문화재관리국 부분공사 주장

팔만대장경(국보 52호)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각의 보수문제를 놓고 해인사와 문화재관리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해인사측은 즉각 전면보수를, 문화재관리국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先부분보수 後전면보수를 내세우고 있다.

해인사 총무 종성스님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지붕 전체가 썩어가고 있는 증거가 많다"면서 "해인사에서 자체조사한 결과 지붕기와를 고르는 등의 전면보수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9월 두차례 파견한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경판과 판가의 누수피해는 없었으나 지붕기와 골 입구가 미끄러져 흘러내리고 건물 내외 천정에 바른 흙 일부가 탈락돼 누수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96년 예산안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97년 이전에는 전면보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8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긴급한 곳부터 부분보수를 한뒤 97년에야 전면보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인 종림스님은 "장경각의 현 상태는 부분보수만으로는 안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면서 "연말쯤 권위있는 학자들의 종합진단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정부에 전면보수를 다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가람배치·입면구조 '독특'

이수민교수 '해인사 장경각 건축환경' 논문 발표



◇이수민교수

최근 해인사 장경각의 지붕기와가 파손되어 빗물이 경판을 적시는 등의 피해로 문화재관리국이 긴급 보수에 나선 가운데 장경각의 공간, 가람배치와 실내·외의 기후분석을 통해 건축환경을 조사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민전문대 이수민교수(건축설비과)는 지난달 25일 동국대대학원 주최의 '현대 환경문제의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에서 '해인사 장경각의 건축환경'이란 논문을 통해 장경각의 독특한 건축환경을 분석했다.

이교수는 "장경각은 국내 최대·최고(最古)의 수장고(收藏庫)로서, 그 배치방식·입면(立面)의 구조등에서 일탄 고건축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당시 장인들의 건축환경에 대한 인식과 건축계획 개념을 밝히고자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교수에 따르면 △수다라장, 법보전의 입면·후면형태는 효율적인 통풍을 위해 맞통풍을 의도한 결과이며 △장경각내의 온도분포는 외기(外氣) 온도변화에 따르고 있고(실내·외 온도차=0.6℃) △장경각내의 습도분포는 여름철 89.9%, 겨울철 75.2%로서 실외습도에 따라 변화한다. 또 △장경각내의 기류는 실외의 큰 변화에도 불구, 0.1m/s~0.3m/s의 일정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유물전시실 개설

美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뉴욕시 소재)에 한국유물독립전시실이 개설된다.

한국실은 97년말께 문을 열 예정이다.



◇김창일씨 등이 설계한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유물전시공간 "법향 가득"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새청사 설계 공모작

2천년대초 서울 용산가족공원에 들어설 국립중앙박물관의 모형이 정해졌다. 문체부가 국제건축가연맹의 공인아래 국제설계경기 방식으로 공모한 박물관의 설계공모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은 정림건축의 김정철 김창일 박승홍씨의 공동작.

이에따라 박물관 내외부는 수상자들의 설계에 따라 지어진다. 박승홍씨는 "전시물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는 공간배치를 위한 설계를 세부적으로 진행한다"며 "불교유물들의 전시공간도 가급적 불교적 이미지를 내포해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다운 수행과 삶의 방법 모색

정찬주씨 불교소설 '훨훨' 펴내

정찬주씨가 장편불교소설 '훨훨'을 내놓았다.

〈유마경〉에 이어 발표한 이 소설은 '상구보리'로 대각을 이루려는 법상스님과 '하화중생'으로 대중포교에 매진하는 지웅스님의 대칭구도로 이뤄졌다. 의과대학을 나와 자신의 존재의미를 추구하며 승려가 된 법상이 홀로 수행하며 깨달음을 구하는 반면 지웅은 중원지역에 미소사를 창건, 천불탑불사를 통해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는데 수행의 의지를 불태운다. 그 둘 외에 천불탑의 설계를 맡은 최립과 승행자가 인생과 우주의 진리에 대한 의문으로 두 스님의 구도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선과 교, 상구보리와 하화중생,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 등의 갈등 대립구조를 긴장감 있게 몰아가며 참다운 수행과 삶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 소설의 줄기다. 특히 하권에서는 구도여행을 떠난 법상의 행적들이 인도라는 공간적 특징과 맞물려 매우 현



장감있게 묘사되고 있다.

문학평론가 장영우씨는 '훨훨'을 "70년대 이후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졌던 불교소설의 형태, 즉 원효나 경허의 무애행을 흉내내는 몇몇 사이비 승려들의 만행을 그리는 것이 좋은 불교소설이라는 일부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있다"고 평했다.

의태부사어를 제목으로 내놓은 이 소설은 수행의 방법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선택한 길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에 문제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장인물들의 확고한 성격들이 이끌어 가는 문제의식들 모두가 결국은 원융의 자리에서 매듭을 풀고 있는 점이 정찬주씨의 불교소설에 대한 '안목 성장'이란 평도 나오고 있다.

정찬주씨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직접 인도를 기행하기도 했다.

다라니경 미국순회 전시

청주 고인쇄박물관 소장 인쇄문화관련 성보가 미국에서 전시되고 있다.

내년 8월까지 뉴욕 퀸스도서관등 5개 도시에서 열리는 순회전에서는 '무구정광다라니경' 영인본 목판본 '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본등 10점이 주목받고 있다.



◇원성스님 동승전에는 신부·수녀 등 타종교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원성스님 동승전 신부·수녀 3백여명 발길

"그림통해 불교사상 깊이 자비의 참뜻 느꼈어요"

동승을 그린 스님의 전시회에 신부·수녀 3백여명이 발길을 이어 화제를 모았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종교인으로서 동승의 소박하고 천진한 모습에 가슴이 따듯해져 오는 걸 느낍니다."

지난달 24일 끝난 '원성스님 동승전'을 다녀간 신부·수녀들은 동승들의 모습에 잔잔한 충격이라도 받은냥 상기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타종교인의 모습이 유독 눈에띈 이번 전시장에서는 그림 앞에 꽃을 꽂아 두고가는 수녀, '엄마가 그립던 날'이라는 작품 앞에서 눈물이 영글던 수녀 등 많은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작품의 동승이 원성스님이냐, 이 그림은 무엇을 얘기한 것이냐,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과 모습에 반해 성직자의 길에 들어섰느냐고 집요하리만큼 물어오는 신부도 있었다.

우연찮게 전시장을 들른 이글레나 수녀(성령성교수도회)에게서 인보성체수도회, 성바오로수도회에까지 전해진 동승의 모습은 선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그림을 보고 난 후부터 전시장을 매일 출근하다시피하며 원성스님과 친구가 되려한다는 베드로신부 일행은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불교의 자비와 사상의 깊이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며 "독일에 가서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동자승에게 받은 큰 감동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 아쉬운 표정이었다.

동승전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환희에 찬 그들의 모습은 그림을 통해 또 하나의 스승을 얻은 듯 했다. 〈필〉

호주원주민 그림전

4~6일 부산문화센터

호주 원주민들이 직접 그린 상상화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국제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전시된다.

통도사 국제포교원(호주 시드니) '정법사' 주지 기후스님이 국제선원과 어학연수를 위한 한국승려기숙사, 고려민속문화원 등의 설립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거북, 무지개뱀, 캥거루, 물고기, 새 등을 등장시켜 호주 원주민들의 소박한 생활상과 토템신앙을 보여주는 작품 1백여점이 선보인다.

부산에 이어 12일부터 8일간 서울 구룡사에서도 전시된다.

한·중 불교문화교류 홍법회 공연

4일 중국소림사서…불교합창단 찬불가등 소개

한국불교성악회합창단(회장 박민선)과 중국불교협의회, 중국 소림사가 함께 주최하는 '한·중불교 문화교류 홍법회'가 오는 4일 중국 소림사(낙양시 소재)에서 개최된다.

7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성악회합창단은 이번 행사에서 주력수행,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목련송, 고향의 노래, 새야새야 파랑새야 등 찬불가 가곡 민요 가요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곡을 소개한다.

중국 고위관리 및 소림사, 백마사 주지, 낙양시 공무원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교류전에서는 연주회뿐만 아니라 소림사 승려무술단의 시범공연도 펼쳐진다.

백령도에 심청각

연내착공…98년 완공

불교교리를 바탕으로한 전래소설 심청전의 주인공 효녀 심청을 기리는 심청각이 세워진다.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달 14일 심청전의 무대로 알려진 백령도에 심청각과 문화행사장, 정자감등을 연내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총 사업비 39억여원을 예산으로 98년까지 완공해 효교육장 및 망배지, 관광자원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인 갈등·혼동 형상화

정옥조무용단 6~8일 문예회관서 '겁' 공연

갈등과 혼돈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춤으로 형상화한 '겁(劫)'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동숭동 문예회관 극장에서 공연된다.

지난달 24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17회 서울국제무용제에 참가한 정옥조현대무용단에 의해 공연될 '겁'은 불교에서 말하는 겁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삶을 시간과 공간적인 또 공간과 시간의 사이를 우회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정옥조무용단은 이번 공연에서 열려진 공간, 정형화된 춤의 형태로 2인무, 3인무 또는 5인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보여준다.

"생명존재 본질 찾기"

박오서씨 '씨알그림전'

을숙도 화가로 잘 알려진 박오서씨의 '씨알그림전'이 지난달 31일까지 대전 21C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 박씨는 자신이 개발한 독특한 소재(석채류)들로 생태의 근원을 탐구한 작품들을 내놔 관심을 끌었다.

박씨는 을숙도의 사계절을 오랫동안 화폭에 담아오며 생명과 존재의 본질찾기를 화두로 삼아 왔었다. 때문에 이번 그림전은 그의 한꺼풀 벗은 내면 세계의 과시이기도 했다.

이덕환씨 '한' 주제전 자연·인간관계 담아

'한'을 주제로한 이 초대전은 작가의 3번째 개인전이다. '地江-자연송' 시리즈의 작품들이 암시하듯 이번 전시는 자연과 인간의 상관관계를 동양화의 바탕 위에 현대적인 붓터치기법으로 그려낸게 특징.

불심시심 〈35〉

도량 아닌 곳이 없다

何處靑山不道場 (하처청산불도량) 어느 곳 푸른 산이 도량이 아니랴만
勞勞身世走他方 (노로신세주타방) 신세만 고달프게 딴 곳으로 달리네
若能信得家中寶 (약능신득가중보) 진실로 자기 집 보배만 얻을 수 있다면
水水山山摠故鄕 (수수산산총고향) 물 물, 산 산이 모두 고향인 것을
環中天子曾成夢 (환중천자증정몽) 도성 안 천자도 이미 꿈으로 변했고
塞外將軍令不行 (새외장군령불행) 국경 밖에서는 장군의 명령도 통하지 않다
箇中拈起吹毛劍 (개중염기취모검) 그러나 터럭도 불려 자르는 칼 일으키면
斬盡胡人宇宙淸 (참진호인우주청) 오랑캐 다 베어 우주가 맑으리라

제월당대사가 청계도인(淸溪道人)에게 준 시이다. 스님들이 자유로이 이 산 저 산을 두루 참여함을 구름이나 물을 따르는 걸음이라 하여 운수행각이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산 어디나 도량이 아닌 곳이 없다. 그렇다면 굳이 이 산 저 산으로 자리를 옮길 이유도 없지 않는가. 내 집 안에 보배가 있건만 그것을 믿지 못함은 아닌가. 내 집의 보배 있음 안다면, 어느 산 어느 물이 되었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내 고향이 아닌가. 그러기에 어디나 불성이 있으되 나의 불성이 가장 고귀한 깨달음의 실체가 아닐까.

천하를 소유한 천자의 지위를 누구나 원하지만 그도 지나고 나면 꿈이다. 왜 그럴까. 역시 천하라는 대상의 물체가 있어 얻어진 지위는 대상의 물체를 잃으면 그 지위마저 없는 것이요 그에 따른 나의 실체의 명칭도 허망한 꿈으로 끝날 것이다. 장군의 호령도 국경이라는 제한된 경계 안에서만 위력이 있는 것이지 그 경계를 벗어나면 군령의 위력이 없는 한낱 자연인의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듯 경계로 한정된 명칭이나 실체는 그 경계를 벗어나면 아무 의미 없는 헛것이다. 그 경계가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경계를 초월한 주인을 찾아야 하고 그 주인을 나의 고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산 어느 물이나 진리의 본체요, 불성의 현현함임을 알아 이 불성을 나의 실체로 체득한 삶에는 불려오는 터럭도 자르는 칼날과 같은 지혜로운 칼로 세속의 모든 먼지 터럭을 잘라낼 수 있을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도선스님 풍수대가로 '비하'

문체부 '내년 7월 문화인물' 선정…교계 역사왜곡 우려

문화체육부가 내년 7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한 도선스님을 단순히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부각시켜 설명하고 있어 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야 한다는 교계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문체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선스님은 827년에서 898년까지 살다간 신라승려'라고 밝히고, "도선스님이 쓴 풍수지리설과 음양도참설을 골자로 한 〈도선비기〉는 정치·사회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문체부는 이상의 설명에 대한 부연으로 '풍수지리설의 대가'라고 칭하고 있다.

이와관련 선종의 대가이자 대사상가인 도선스님을 단순히 풍수지리설의 대가라고 비하시키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게 교계의 주장이다.

동국대 김영태교수는 불교계 인물중에서도 특히 스님이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 축하할 일이나 "불교계뿐 아니라 민족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인물을 공공기관에서조차 오도하고 있는 것은 후세 교육차원에서도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도선스님은 15세에 월유산 화엄사로 출가해 화엄학과 교종·선종에 통달했다. 학문을 두루 갖춘 스님은 전국 명산대찰을 둘러보고 선한 기가 흐르는 터에 산문을 열었다. 일반인들의 오류는 여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짐작하고 있다. 수행하기에 적합한 터를 가리기 위해 시작된 도선스님의 택지(擇地)는 원시불교에서 태동한 '만다라 택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만다라 택지법의 치지법(治地法), 관지상법(觀地相法), 관지질법(觀地質法) 중에서도 치지법을 주로 한 스님의 학문은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의 기조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년 2월 도선국사의 발자취와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내용을 다룬 역사소설 〈도선국사〉를 발표할 계획인 김종록씨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을 아무런 검토없이 선(禪)의 대가이자, 해동 도가(道家)의 맥을 이은 도선국사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단순히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알리는 것은 또다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불자들은 내년 7월 '도선스님의 달'을 앞두고 "불교계와 문체부가 보다 정확하게 스님의 사상을 알리기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에 몰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선종(禪宗)의 대가이자 대사상가인 도선스님의 영정. 스님은 '만다라 택지법' 중 치지법을 주로해 한국불교의 한 획을 그었다.

btn 직원 교리공부 '열기'

더좋은 포교방송만들기 30여명 동참
매주 토요일 모임…매월 사찰 참배도

"신심있는 불자가 좋은 포교방송 만든다."

지난달부터 교리공부 열기로 후끈거리고 있는 불교텔레비전 교리공부 모임의 캐치프레이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면 어김없이 7층 회의실에 모여 공부하고 있는 30여명의 불교TV 직원들은 포교방송의 특성을 살리고 유익한 방송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교리를 익히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에서 공부 모임을 시작했다.

지난달부터 두달간 강정기 경영관리 부국장의 지도로 불교예절과 불교상식을 배워왔으며 4일부터는 기획홍보부 박석순부장의 지도로 본격 교리공부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불교TV 교리공부 모임은 실질적인 현장교육을 위해 '떠나세'라는 별도모임도 만들어 한달에 1번씩 사찰을 직접 찾아 스님의 법문을 듣고 문화유산과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지난달 1일과 20일 치악산 구룡사와 양수리 수종사를 다녀왔다.



◇불교TV 교리공부 열기는 실질적인 현장교육을 위해 산사를 찾아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있다.

강정기 부국장은 "불교TV가 포교방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초창기 법회법식을 촬영하면서 한템포 앞서가 준비해야하는 카메라가 뒤늦게 움직여 내용자체를 서투르게 담을 수 밖에 없어 불자시청자들을 확보해낼 수 없었다"고 불교의식과 교리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공부모임은 직원들에게 '내가 곧 포교사'라는 자부심도 심어준다.

첫모임부터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마케팅부의 송재민씨는 "불교교리를 배우며 작은 일하나에도 느낄 수 있는 예의를 깨우치고 있다"며 "포교방송사가 포교에 순응하지 못하고 역포교하면 말할 수없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교리공부는 필요하다"고 한마디.

김원우 기자

BBS '룸비니 동산' 진행
하이틴스타 **김 수 정** 씨



"어린이 불자들과 함께하는 프로를 맞게되어 기뻐요. 발랄하게 방송하여 어린불자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렵니다"

불교방송의 가을 정기개편과 함께 어린이 프로 '룸비니 동산'을 맡게된 탤런트 김수정씨(중앙대 연영과1년)는 통통 튀는 연기와 깜찍한 모습으로 인기를 한데 모으고 있는 하이틴 스타.

어머니 진임주씨와 함께 삼각산 삼정사에 다니면서 불심을 키우고 있는 김수정씨는 어머니의 간절한 불공으로 태어났다며 빙그레 웃는다.

그래서 그런지 "스케줄이 빡빡했음에도 불교방송의 섭외에 선뜻 승낙하게 됐다"며 "불자인 만큼 불교방송에 애착도 강하다"고 말한다. 항상 손목에 단주를 차고 다닌다는 김수정씨는 "얼마전에 열반한 삼정사 삼일스님이 친딸처럼 여기며 항상 생일기도를 해주었다"며 감사한 만큼 "불교방송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씨는 89년 드라마 '일출'로 연기대상 특별상을 수상했고, 현재 교육방송에서 '아름다운 세상 커다란 꿈'을 진행하고 있다. 〈원〉

"발랄한 방송으로 동심에 불심을"

BBS 가을개편

'아침을 열며' 등 6개프로 신설

불교방송은 1일부터 6개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대신 10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4개프로그램의 시간을 변경하는 가을정기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이번개편의 두드러진 특징은 '음악의 마을' 등 4개프로를 지방에서 자체방송하는 편성으로 지역국 역할증대 활성화를 꾀하고 불교소재 개발로 청취자와 밀착을 꾀하여 화합하는 신행의 공감대를 이루는 프로그램을 대폭 늘린 것. 또 같은 소재로 일반방송과 경쟁하는 맞편성을 자제함으로써 불교방송 특유의 편안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폐지된 프로는 '불국토의 아침 1부' '오늘을 이끄는 불교' '세계의 불교는 지금' '생방송 도반을 찾습니다' '언제나 푸른 불교' '환경패트롤' '생방송 정보시대 1·2부' '내마음의 가요 1·2부'이며 신설된 프로는 '아침을 열며'(07:20~08:00) '참선이야기'(11:05~11:20) '음악의 마을'(14:10~15:00) '물같이 바람같이1·2부'(18:15~20:00) '살며생각하며 2부'(저녁 12시~오전1시)이다. 특히 매주 금요일 방송되던 청소년프로 '언제나 푸른불교'가 폐지돼 유일한 청소년 포교프로그램이 없어진다.

개편과 함께 새 진행자로는 '거룩한 만남'을 덕신스님(조계종 문화국장)이 '불국토의 아침'을 법현스님(원각사주지)이 '살며 생각하며'를 송강스님(미타사주지)이 맡아 비중있는 프로에 스님들이 대거 기용된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스님 구도의 삶 영화로

열반 2주기를 맞는 성철스님의 삶이 영화화된다.

최근에 신설된 금산영상사업단이 창립작품으로 마련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정인엽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20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생한 영화의 제작을 위해 성철스님이 수행했던 금강산 마하연과 백두산 천지를 촬영키로하고 정부 관계기관과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만인의 심금을 울렸던 다비식을 재현하기위해 할리우드의 특수모형 조형과 촬영팀이 함께하고 폐사된 신라시대 사찰도 완전 복원키로 했다.

그동안 큰스님의 인간상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관객들에게 전달하려는 영화화 작업은 수차에 걸쳐 여러 영화사에서 거론된바 있으나 성사되지 못했었다.

반쪽 될뻔한 구족계단

"비구스님들만의 구족계 수계법회." 하마터면 이러한 희유의 일이 벌어질뻔 했다.

범어사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조계종 제16회 구족계단 수계산림에서 비구·비구니가 될 예비스님들 3백40여명이 11월 1일 수계로 회향한다.

그러나 지난 주까지만 해도 교육과 수계법회에 비구니스님들의 참여가 불투명했다.

비구니 계단위원회와 비구니회에서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율 강의를 관례대로 비구니에게 맡겨달라는 간곡한 청이 계단위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구니계는 지난 5월과 10월 공문을 통해 "단일계단 2부승제도가 시작된 1980년 1회부터 93년까지 비구니 계율강의를 비구니 교수사가 전담해 왔었는데 지난해만은 비구스님이 비구니 계율 강의를 맡아 비구니 계단의 정서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 비구니 교육은 비구니들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것이 "절대 율장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관련경전까지 근거로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계단위원회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0일 열린 제1회 계단위원회에서는 "율장의 가르침에 어긋나므로 공문에 서명한 비구니에게는 엄중한 경고조치를 하고 개전의 정이 있을 때까지 수계산림 및 행자교육에 참여치 못하도록 하겠다"는 경고까지 했을 정도다.

지난해 〈비구니 팔경계법〉 논쟁이후 비구니스님들에게 율장강의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율사스님들의 대체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자 비구니스님들은 "그렇다면 수계산림에 불참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총무원을 통해 전달했다. 비구니스님들 나름대로의 고충을 표출했던 것이다.

구족계단이 이렇게 반쪽이 될 위기에 놓이자 총무원이 적극 중재에 들어가 올해는 전계대화상 일타스님이 율강의를 맡기로 하고 비구니스님들도 일단 동의를 했다.

그러나 비구니계는 "비구니 계율강의는 비구니들에게 맡겨달라"는 요청을 이후에도 계속 하기로 했다.

〈비구니팔경계법〉에 대한 해석과 준용, 이에 맞물린 비구니스님들의 위상제고 요구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일단 재는 덮었지만 불씨까지 꺼진 것은 아닌 것이다.

이경숙 기자

목탁소리

진정한 교권 회복돼야

민족불교의 교권과 자주권은 살아 있는가. 그리고 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10·27법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전불련, 실천승가회 등 교계 재야단체들이 10·27법난 15주기를 맞아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과거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27법난은 신군부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희생양이었으며, 그 법난의 빌미를 제공한 주인공이 바로 불교계였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가해자도 피해자도 불교계 자신인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미 세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를 15년전의 일에 대해 왜 굳이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것인가.

전불련이 지난 2일 '10·27법난 책임자 참회촉구법회'를 추진하면서 "법난이라는 크나큰 아픔을 겪은 이후에 과연 그런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내적인 정화가 선행되었던가"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 법난이후 불교계는 과연 얼마나 뼈를 깎는 자성을 하였던가. 그리고 지금 그 교훈의 값을 얼마로 치부해 버리고 있는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실력자들의 잦은 불교계 방문으로 '불교계 껴안기'가 시작됐다. 군화발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불교계가 이제는 쓸만한 (?) 표밭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때마다 줏대없이 흔들리는 배알없는 불교계의 자세다. 1600년의 불교역사, 그 역사의 주체가 과연 누구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는 자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불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5·18문제를 둘러싸고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역사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역사는 산교훈이며 내일을 비춰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불교중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불교계, 그보다도 실추된 명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만성적인 자기패배감에의 순치.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불교는 항상 남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희생양일 수 밖에 없다.

한명우 기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그리움

무덥던 그 여름도 가고
가을 들녘
바람결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의 청초한 멋스러움!
고운 자태의 터질 것 같은 그리움이
아픈 사연으로 속세를 방황하는
목마른 독경 소리 되어
홀로 아픈 가슴 물고
소슬한
바람은 가슴 속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리도록 젖어드는 목탁소리
기다림의 끝벼랑에 서서
외로움 고독으로 나를 감싸안을 때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정겨운 얼굴은
나의 빈가슴으로 채워질 때
어느새 가슴 한 구석
가만히 새겨지는 그리움 하나
사랑하는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이자임 결혼 연구원으로…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농협온라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및 법문 모음집 •
깨침의 노래
한권의 책으로 수많은 고승들과 만난다!!

◘ 총 380여수의 「깨침의 노래」국내 최초 출간!!
한국과 중국을 통틀어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법문을 총망라한 「깨침의 노래」 불교계 최초 출간!!

◘ 개인·단체·학교·사찰 단위로 단체 주문 쇄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후 읊은 큰스님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큰스님들의 행장을 말해주는 법문 등을 편저자 권성구님이 전국 사찰을 수십년간 순례하여 모은 380여수의 주옥같은 노래!!

◘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읽어야 할 책!!
「깨침의 노래」는 스님과 불자들에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며,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씻겨주는 청량제!!



신국판/450쪽/값9, 500원

◎ 연속 재판 !! 절찬리 판매중 !!
10부 이상 법보시를 원하시는 스님·불자·일반인들은 도서출판 사람들로 연락을 주십시오. 정가의 10%할인 해택을 드립니다.

◎ '95 불교 출판계 스테디셀러!!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열반송·법문등을 소장하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은 도서출판 사람들로 연락을 주십시오. 개정 보증판에 수록하겠습니다.

도서출판 사람들
전화 : (02)725-6752~4
팩스 : (02)725-6920

불교 정보 95년도 신판 발간
(불기 2539년-1995년-가을호)

불교계의 자료집으로 제작·보급되는 불교정보는 불교계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알차게 갖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재된 내용
1) 불교 종단의 임원 및 주소, 전화번호, 역사 등
2) 사찰의 건립 및 중창 역사, 주소, 전화번호, 현존 문화재, 소속종단, 조실 및 현 주지 등
3) 전통사찰에 전해 오는 설화와 사찰 기록
4) 사찰과 포교당의 법회, 위치 및 교통편 안내
5) 불교계 언론 및 잡지사, 출판사, 불교용품 전문점 등
6) 불교계 각종 학교, 신도회 및 일반 신행회 안내
7) 사찰과 신행회는 각 시도별로 가나다 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면 개정판에 기재하겠습니다.
※ 불교정보 1권당 1만원입니다.
※ 책 대금을 다음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접수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053-12-023151
외환은행 150-13-11760-5
국민은행 832-24-0006-924
서울신탁은행 15501-2537606
체신부(우체국) 011965-0066025
조흥은행 390-04-164932

예금주 : 이성호

도서출판 다모다
☎ 02-725-6000

현대불교

구독신청문의 7737-0693
광고신청문의 7737-0692
팩 스 7737-0693

"컴퓨터로 만나는 부처님 마음으로 합장합니다"

뇌성마비 불자 천정욱씨



◇발가락 하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천정욱씨가 컴퓨터를 통해 새 삶을 살고 있다.

독학으로 컴퓨터…발가락 하나로 통신 '척척'

또닥, 또닥, 또닥…. 컴퓨터 자판기 소리와 함께 단말기에 하얀 글씨가 이어진다.

"회원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하신지요. 이번 주말에 떠나는 사찰순례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군요. 왜냐구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컴퓨터 하이텔 불교동호회 장애법우들을 위한 모임인 '칠연회(회장 임종욱)' 회원 천정욱(21·부산 거제동)씨는 이번에 떠나는 사찰순례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천씨와 컴퓨터 통신을 통해 대화를 하던 회원들이 모니터에 즉각 반대의견을 내놓는다.

"지난달 시흥 법룡사 순례 때는 잘 다녀왔잖아요? 정욱씨가 불참하면 아마 회원들 모두가 가지 않을거예요."

"알았어요. 신중히 생각해 볼께요."

천씨가 바깥 외출을 꺼려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급 뇌성마비로 혼자 힘으로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후 7개월 때부터 신체에 이상조짐이 나타나 정상적인 발육이 되지 않아 도리없이 20여년간을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했다. 그동안 천씨는 개인택시를 하는 아버지와 집근처 사찰을 다녀오는 게 외출의 전부였다. 바깥 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학교수업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가족과 지내는 시간외에는 거의 하루종일을 홀로 지냈다. 그러다보니 천씨가 자신의 성대를 울려 구사할 수 있는 단어는 1백개 내외.

그런 천씨에게 문명의 이기라는 컴퓨터는 둘도 없는 친구요, 소중한 애인이며 법우다. 2년전 선물로 받은 컴퓨터를 발가락 하나만(왼쪽 발가락 외에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함)으로 이리저리 매만지던 그는 순전히 독학으로 컴퓨터를 익혔고 '칠연회'와 인연을 맺게 됐다. 매주 한번씩 찾아오는 회원들과의 만남이 천씨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자신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법우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서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손으로 합장합니다."

이는 천씨가 매일 컴퓨터 통신을 시작하면 띄우는 글이다. 이제는 불교 초발심자들이 대부분인 칠연회 회원들의 인사법이 되었다.

요즈음 천씨는 몸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도 컴퓨터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친구를 사귀는 즐거움에 빠져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말한다.

부산=박병근 기자

"10·27 법난 진상규명 정부에 촉구"

전불련등 교계단체 성명발표…5·18특별법도 요구

전불련, 재불련, 불민협은 지난달 25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5·18학살 및 10·27책임자 참회 촉구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 참가한 단체들은 10·27법난에 대한 진상규명과 불교내 부역자 인사의 참회, 조계종단을 비롯한 각 종단의 진상규명의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5·18특별검사제 도입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도 같은날 발표한 성명에서 "10여년간 불교를 분규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낸 10·27법난의 진상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것은 현정부의 부도덕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2천만 불교도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실천승가회는 26일 보광사에서 '10·27법난 15주기 및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국법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철스님 추모 다채

조계종 전 종정 성철스님 열반 2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기념사업이 해인사와 백련암에서 펼쳐진다.

해인사 백련암 성철스님문도회(대표 법전스님)는 성철스님의 기일인 11월12일 오전 10시30분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추모제를 봉행한다. 이에앞서 문도회는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백련암 고심원에서 '성철선사 추모 칠일철야 참회법회'를 봉행한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참회법회는 성철스님문도회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하여 매일 2시간씩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천배 참회기도로 7일동안 이어진다.

또한 문도회는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밖에 문도회는 성철스님 사리탑을 내년 4월에 착공, 98년 완공할 예정이며 성철스님 불교학술상 및 논문상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상할 계획이다.

현재 문도회는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는 성철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의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선림고경총서〉을 비롯한 역경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불교단체에 지원금

불심홍법원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이사장 정관)은 10월24일 시내 식당에서 하반기 불교단체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부산불교중학생연합회, 고등학생연합회, 대불련부산지부, 세전포교원 등의 단체가 각각 1백만원씩 지원금을 받았다.

불심홍법원은 연간 1천만원의 신행단체 보조금과 1천만원의 지도법사 연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한의과생 4백여명 조계사서 농성계속

조계사에서 농성 9일째를 맞고 있는 전국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소속 학생2백여명과 외부에서 합세한 학생등 4백여명은 지난달 25일 조계사에서 집회를 가진 후 종묘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대내 한약학과 설치에 반대한다'며 조계사 대웅전 뒷편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었다.

한편 조계사내 농성은 94년 8월 전기협 노조와 지난달 6월 한국통신 노조 농성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새 이사 고산·법장스님

동국학원 법인이사회

동국학원 법인이사회(이사장 녹원스님)는 지난달 23일 타워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신임이사로 고산(쌍계사 주지) 법장(수덕사 주지, 현 감사)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녹원(직지사 회주) 현성(현성정사) 벽파스님 서돈각(진흥원이사장) 송석구(동대총장) 유주형(동대총동창회부회장) 안채란(부천 영석고 이사장)씨는 유임됐다.

복식회계시스템 도입등 조계종 재무행정 현대화

조계종은 복식회계시스템 도입등 종단의 재무행정에 획기적인 현대화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종단의 자산관리 및 재무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무행정을 지향하기 위해 조계종은 '재무회계규칙(안)'을 만들어 재무회계관리의 전산화도 추진해 내년 총무원 예산편성부터 적용, 년차적으로 세부적 보완작업을 거쳐 직영사찰·교구본사등으로 시행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실천승가회 중앙위 개최

실천승가회(공동의장 청화·지선스님)는 지난달 25일 근본도량 파주 보광사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실천승가회가 소속한 종교인협의회는 오는 2일 오후3시 보광사에서 '종교인 대화모임'을 개최하고 종교간에 왜곡돼 있는 부분을 상호 이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4일 청소년 어울마당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은 제3회 청소년 어울마당을 오는 4일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최한다.

경찰청 경승실 3돌 법회

경찰청 경승실은 지난달 28일 경찰청 법당에서 경찰과 가족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불 3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자민련 불자회 창립

자유민주연합 불자회가 지난달 25일 창립됐다.

자민련 불자 1백여명은 이날 자민련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회장에 김용채부총재를 선임하고 지도법사에 만다스님(대전포교원장)을 위촉했다.

12일 삼보불사 회향법회

금년을 '삼보실현의 해'로 정하고 운동을 펼쳐온 삼보법회(회장 조호정)가 11월12일 삼보정사에서 삼보불사 회향식을 봉행한다.

삼보회는 이날 대웅전 본존불 개금불사, 법요집편찬사업, 향적당 개보수 불사를 회향한다.

조계종 16회 단일계단 수계산림

3백30여 스님 구족계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달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제16회 단일계단(전계대화상 일타) 구족계 수계산림을 실시했다.

이번 구족계 수계자 신청자는 사미 1백78명, 사미니 1백58명으로 첫날 승가고시와 수계자 심사를 거친 후 둘째날 수계산림법회 일정에 들어갔다. 5일간의 교육일정은 습의, 율학, 위의문강의(니승:대애도경), 백팔참회, 사분계본독송등으로 진행됐다.

총정 월하스님은 수계식에 법어를 내려 "계(戒)는 본래 악을 그치고 세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정(定)은 이치를 거두어 육천에서 초월케 한다"며 "계법이 아니고서는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설했다. 수계식은 본단비구계에 이어 본소계단 비구니계 수계를 끝으로 회향됐다.

"고속철 경주우회도 안된다"

문화재위원회 성명…"古都보존법 제정 시민 불이익 해소"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문화재 위원회(위원장 임창순)가 고속철 경주통과 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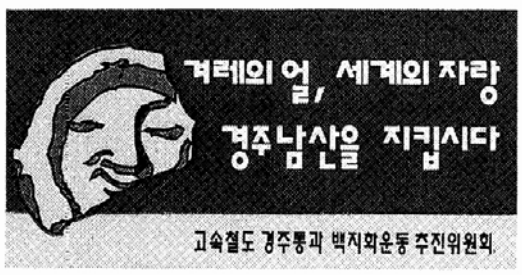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 한국의 집에서 2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통해 "일제가 파괴한 경주를 우리가 다시 파괴하려 드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고 후손들에게 오욕의 역사를 남겨주는 수치스러운 일이다"며 "건교부의 고속철도 경주통과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경주 시민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면서 고도(古都)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고도보존법' '역사고도풍치보존법'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임위원장은 "경부고속철의 경주통과안 철회요구는 고속철의 경주 도심통과는 물론 우회에도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일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본부가 관계기관에 보낸 선언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건교부, 문화재관리국이 면담 및 협의를 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또한 부산 범어사 부주지 혜총스님을 비롯한 스님들도 지난달 17일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을 방문하고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범어사 철도구간 지하터널화 △종착역 노포동건립 △경주통과 우회를 건의했다.



범어사 7인 수습자문위 구성

경동아파트 건립반대등 문중의견 대변

경동건설측의 불사경비 지원설 등으로 따가운 여론의 화살을 받았던 범어사가 지난달 20일 휴휴정사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아파트 건립반대를 원칙으로 한 7인 수습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산중총회에서는 흥교, 벽파, 인걸, 성오, 선래, 지형, 덕명스님을 7인 수습자문위원으로 선임하고 주지직 사임을 표명했던 정관스님에 대해 임기만료일까지 재신임할 것과 경동아파트, 선암사 앞 아파트, 경부고속철도 노선변경 등 현안문제에 대한 전권을 일임하기로 했다.

티베트문화원 대구에 설립

국내 처음…학술·문화등 교류확대 기대

티베트문화원이 국내 처음으로 대구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 '중국 서장자치구 티베트문화원 설립운영위원회'는 대구대 우상태교수, 영남전문대 신동근교수, 경북도 김용만학예관, 동화한의원 나영득원장 등 1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만간 문화원을 설립, 사단법인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티베트문화원 설립에는 충정사주지 도윤스님, 해인사 백련암 원택스님도 동참했다.

화엄사상연구소 설립

화엄사 본말사 주지·문도총회 기금조성 결의

화엄사(주지 종열)는 지난달 22일 끝난 보살계 수계법회와 부처님사리 친견법회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내년에 (가칭)도광 도천 장학회와 화엄사상연구소를 설립한다. 이는 지난달 9일에 열린 화엄사 본말사 주지 및 문도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살계법회에 사부대중 2만여명이 동참, 5억여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장학회와 연구소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시대의 참다운 불교결집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은 국내 40여 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근본불교의 「결집」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현대사회의 제문제를 불교적 시각으로 분석,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을 생생한 삶의 지침으로 승화시킨 대중불교 「결집」입니다.

■구성:제1장 불교란 무엇인가
1. 불교의 본질 2. 불교의 역사와 발달
3. 오늘의 세계와 불교

제2장 불교와 현대사회
1. 가정 2. 현대사회와 교육
3. 환경과 생명 4. 미래의 불가
5. 노동 6. 일상생활
7. 사회윤리 8. 복지
9. 과학 10. 사회와 국가
11. 문화 12. 정보통신
13. 미래사회 14. 타종교에 대하여

제3장 불자의 신행
1. 무엇을 믿을 것인가? (佛寶)
2. 어떻게 닦을 것인가? (法寶)
3. 불자의 자세 (僧寶)

●사양:4×6배판, 606p, 양장제본 ●발행: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02)719-2606
●정가:20,000원 ●보급:도서출판 대원사 (02)757-6717

화제의 신간
(보문품)의 가르침을 우리의 언어로 새롭게 쓴 생명 법문
관세음보살
보문품강화
普文品講話
법령스님 지음

건강 때문에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여 투병해 온 한 출가인의 수행기

고통스럽고 외롭고 잠시 즐거울 때도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여 자신을 가늠하면서 살아온 수행인의 관세음보살의 영험과 체험을 통해 얻은 신앙의 결정체

신국판/값 8,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옛날과 지금 부적의 결정판!!!
김백만 편저/값 35,000원

관음독송경 시리즈

1. 우리말 금강경(심재열/값 2,000원)
2. 한문 금강반야바라밀경(심재열/값 2,000원)
3. 우리말 불설아미타경(심재열/값 2,000원)
4. 한문 불설아미타경(심재열/값 2,000원)
5. 우리말 천지팔양심주경(이청범/값 2,000원)
6. 한문 불설천지팔양심주경(이청범/값 2,000원)
7. 우리말 에불대참회문(심재열/값 2,000원)
8. 지장보살본원경(동봉/값 6,000원)
9. 원각경 보안보살장·팔양경(경흥/값 2,500원)
10. 천수경(근간)
11. 부모은중경(근간)
12. 관음경(근간)

※법보시물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전화 : 02) 921-8434, 929-3470 팩스 : 02) 929-3470
관음출판사

현장 수진스님의 전통복장의식 재현

간절한 예경…염원…부처님 나투시네

보석·곡식등 '세상의 보배' 65종 정성껏 공양
"불상을 성스러운 법체로 만드는 거룩한 의식"

일반적으로 점안식은 사부대중이 동참해 성대히 치르는 의식이어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복장식은 몇몇 스님과 시주자 등이 점안식 이전에 소문내지 않고 치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은밀한 복장식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되는데 그 의식을 전통적인 예법으로 주관하는 스님은 전국에 단 한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주인공은 태고종 3, 4대 종정을 역임한 묵담스님의 상좌 수진스님(탑양 용화사주지)이다.

수진스님은 지난 12일 수락산 염불사(주지 호영)에서 주최한 복장식을 주관하며 전통복장의식을 재현했다. 그 현장을 통해 복장의식의 절차와 의미를 알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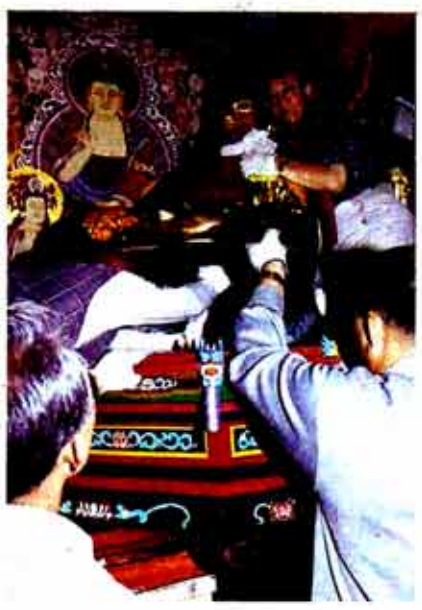
복장의식의 첫 순서는 부처님을 모실 절에서 미련한 오곡밥 세그릇, 나물반찬 세그릇, 감로수 세그릇, 과일 세접시, 떡세접시를 일주문 앞과 마당 부처님 모실 법당 앞에 각각 차려 놓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이는 성스러운 부처님을 모시는 시간에 도량 수호신장과 일체중생에게 그 공덕을 베푼다는 의미이다.



"지극한 정성" 다섯방향으로 둘러앉은 스님들이 작은 복장통(보배병)에 갖가지 진귀한 물건들을 넣고 있다. 사진은 온문사 복장의식 장면이다.

복장의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크고 작은 복장통에 복장물품을 넣는 대목이다. 이 순서가 가장 긴 시간을 소요하는데 보통 2시간반~3시간이 걸린다. 그것은 복장통에 65가지나 되는 물품을 넣기 때문이고 각각의 물품을 넣을 때마다 해당되는 주력을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배 속으로 들어가는 복장통은 순은으로 만들어진다. 큰 복장통 1개에 작은 복장통 5개가 들어 간다. 작은 복장통은 5×7㎝정도의 사각형이며 동서남북 사방과 중앙, 다섯 방위를 뜻하며 각 방위별로 청(동) 적(서) 백(남) 흑(북) 황색(중앙)의 표시가 붙어 있다. 이들 색이 곧 방위를 뜻하는 것이다.



◇추령통을 보배병과 진언들로 채운뒤 3색의 천으로 싸서 5색실로 묶고 불상의 배부분으로 넣는다. 염불사 복장식 장면.

작은 복장통에 들어가는 물품 65가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것들을 뜻한다. 보석과 곡식과 길상초 금강저 등 13종류가 5점씩 각각의 방위로 배치된 통에 들어 가므로 65가지가 되는 것이다.

〈도표참조〉

복장의식은 큰 탁자를 중심으로 다섯명의 스님이 둘러 앉아 진행한다. 주관하는 스님을 따라 염불을 외우고 스님이 "5보요"하며 금 진주 은 유리 호박을 각각 나눠주면 각 방위별로 앉은 스님들은 "홈"하며 물품을 받아든다. 그리고 조심스레 작은 복장통에 각각의 물품을 하나씩 넣는데 매우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해 마구니의 침범을 막는다.

각각의 복장물을 작은 복장통에 넣는 사이 사이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 '화엄경약찬게' '반야심경' '법성게' 등을 대중들이 이어 외우고 집전하는 스님들은 각각의 품목에 정해진 주력을 한다.

이같은 순서로 작은 복장통이 채워지는데 이 작은 복장통은 다르게 보배병이라고도 한다. 이 보배병은 만법을 포용하는 여래의 몸을 뜻하는 것이다. 보배병은 뚜껑으로 단단히 밀폐시켜 큰 복장통에 방위를 맞춰 넣는다. 큰 복장통은 추령통이라고도 하는데 보배병을 넣기전에 밑바닥에 거울을 깔아 시방법계를 두루 비추는 법광(法光)을 비추게 한다.

추령통 안에 보배병이 다 들어가면 그 위에 다시 진언을 범어로 쓴 종이를 덮는다. 부동진언(不動眞言)을 외며 추령통을 단단히 봉해 3색천으로 싸 오색실로 묶는 것으로 복장통 채우는 의식은 끝이 난다. 이로써 이 복장통은 법계의 귀한 물품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 공덕으로 부처님은 만중생의 번뇌를 거둬가며 위 없는 법공을 법계에 비춘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3색천으로 싸여진 복장통을 불상의 아랫부분을 통해 뱃속으로 넣는 순서에서는 복장통과 발원문 신도들이 시주한 각종 보석류 불상조성기 시주자 명단등이 함께 준비된다.

주력을 하는 엄숙한 속에서 주관하는 스님이 각종 복장물을 부처님 뱃속에 넣는 것으로 복장식은 마무리가 된다.

법당 밖과 마당 일주문 밖에 차려진 음식들을 도량 여기저기에 뿌려 만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4시간 동안의 복장 의식의 마지막 순서다.

임연태 기자

◇복장에 들어가는 65가지 공양물

종류 \ 방향	동	남	서	북	중앙
5곡(穀)	보리	피	벼	녹두	깨
5보(寶)	생금	진주	생은	유리	호박
5약(藥)	인삼	감초	계심	가자육	부자
5향(香)	청목향	정향	곽향	침향	부향
5황(黃)	대황	화황	소황	자황	우황
5개자(芥子)	시라개자	자개자	백개자	흑개자	황개자
5채반(綵幡)	청채번	적채번	백채번	흑채번	황채번
5색선(色線)	청색선	적색선	백색선	흑색선	황색선
5시화(時花)	청시화 (봄꽃)	적시화 (여름꽃)	백시화 (가을꽃)	흑시화 (겨울꽃)	황시화 (사철꽃)
5보리수엽	측백나무잎	가래나무잎	자귀나무잎	오동나무잎	버들잎
5길상초(吉祥草)	거사초	마하길사초	이거사초	거사초	당거사초
5산개(傘蓋)	청개	황개	홍개	녹개	백개
5금강저(金剛杵)	청저	홍저	백저	녹저	황저

인터뷰 전통 맥 유일하게 이은 수진 스님

화담→금해→묵담 맥 30년째
"스님들에게 바르게 전수되길"

"복장불사는 모시는 부처님에 대한 중생의 지극한 예경입니다. 가장 신성스럽고 귀한 물건들을 부처님 배부분에 넣으므로 그 부처님은 많은 중생이 우러러 의지하는 색신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처님을 조성하는 경우가 드물어 안타깝습니다."

전통복장의식의 맥을 유일하게 잇고 있는 스님으로 알려진 수진스님. 스님은 조선 중기 이후의 화담, 금해, 묵담스님으로 이어진 복장의식의 법식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 수행자로서의 가장 큰 공부라고 말했다. 영산재 의식에도 능한 스님은 30여년간 복장의식을 진행해 왔다. 금산사 영화사(서울) 운문사 부산 관음사 해인사 보현암 최근의 공주 성곡사 등 수 많은 사찰의 부처님 복장을 채운 스님은 복장의식의 가장 큰 의미를 두가지로 새겨 주었다.

"하나는 중생이 부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을 최상의 존재로 받들어 모시고 그 위덕을 의지해 중생의 고달픈 삶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복장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불모가 조성한 불상을 생명체로 전환시켜 신앙의 대상으로 우러르게 하는 의식이 복장식이란게 스님의 설명이다.

"다음은 부처님이 중생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모신 부처님이 색신불로 화현해 중생의 염원을 반드시 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또한 무의미한 것입니다. 복장의식은 정말로 우리곁에 살아 계신 부처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모시는 의식이란 것입니다."

더러 이 의식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스님들이 있지만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질려 이내 포기하고 만다는 스님은 소중한 불가의 의식이 보다 바르게 많은 스님들에게 전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Having torn the ties, having broken the net as a fish in the water, being like a fire not returning to the burnt place,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듯, 한 번 불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With downcast eyes, and not prying, with his senses guarded, with his mind protected free from passion, not burning (with lust),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눈을 아래로 두고, 두리번거리거나 헤매지 말고, 모든 감관을 억제하여 마음을 지켜라. 번뇌에 휩쓸리지 말고 번뇌의 불에 타지도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Removing the characteristics of a gihin(householder), like a Parikhatta tree whose leaves are cut off, clothed en a yellow robe after wandering away (from his house),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잎이 져버린 파리찻타 나무처럼, 세속의 모든 표적을 버리고 출가하여 가사를 걸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⑭

♦ Not being greedy of sweet things, not being unsteady, not supporting others, going begging from house to house, having a mind which is not fettered to any household,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달콤한 맛에 탐착하지 말고, 욕구하지도 말라.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무도 없으니 분전마다 밥을 빌며 거주처에 대한 애착을 끊어 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Having left the five obstacles of the mind, having dispelled all sin, being independent, having cut off the sin of desire,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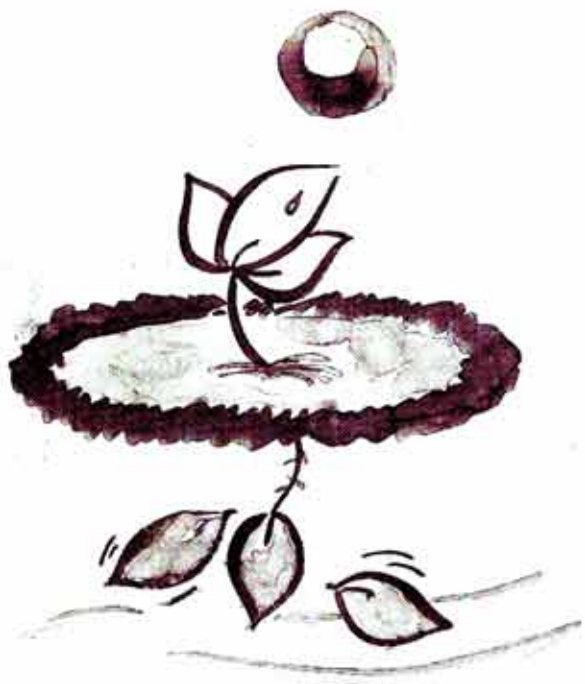
마음속의 다섯가지 장애를 버리고 온갖 번뇌를 제거하여 의지하지 않으며, 애욕의 허물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letter 속박, 구속
*burnt (burn의 분사형) 태우다, 타다
*lust 강한 욕망
*depel 쫓아버리다, 흩뜨리다.

한명우 기자

생활 속의 불교 ㊼

한 생각 나고 죽는 윤회 속에서



기어다니는 벌레가 한 번 날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 한 생각은 진화의 힘이 된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기어다니는 몸을 벗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 수 있게 된다.

마음은 진화력이다. 마음의 차원이 높아지면 육신의 기능도 발달한다. 육신만이 아니라 중생심도 점차 계발이 되어 끝내는 성불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세상 만사도 다 마음의 설계가 밖으로 드러난 결과이다. 어느 것, 어느 경우 하나라도 마음 먹기와 무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인 것이다.

심보를 곱게 쓰지 못하면 결과도 좋을 리 없다. 나쁜 마음, 잘못된 생각을 품고 키우면 심조(心造)는 망조(亡兆)로 이어진다. 한 생각에 의해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한 생각 나고 죽는 것도 윤회이다. 죽어서 새 몸을 받고 다시 태어나야만 윤회가 아니라 찰나간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생각을 따라 우리는 찰나간에 윤회한다. 방금 나쁜 생각이 일어났다가 생각을 돌리게 되면 나쁜 생각을 했던 그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나'로 거듭 난 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 생각 늙어 죽고 한 생각 다시 태어나는 바뀜돌이를 계속하고 있다. 고로 한 생각은 진화와 퇴보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한다. 차원 높게 승진하느냐 낮은 차원으로 굴러 떨어지느냐 관가름이 난다고 한다. 그러나 평생의 삶이란 찰나찰나 한 생각의 모음-집적인 것이지 다른 모습이 아니다. 고로 평생의 삶보다 한 순간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거듭나면서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며 진화의 기초를 닦고 있는 것이다. 고로 한 순간을 새 삶처럼 맞이해야 한다. 방금 전의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 새로 태어나 세상 공부를 다시 배운다는 자세로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 그렇게, 평생을 초보 운전자처럼 한 눈 팔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진화의 빛나는 훈장을 목에 걸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갈 때, 다만 습관에 의지해 그냥저냥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한 생 한 생을 덧없이 흘려보내는 셈이 된다.

어느 누구라도 '당신의 생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니 그럭저럭 살아가라.'는 권고를 받는다면 남의 소중한 일생을 하찮게 본다며 화를 벌컥 낼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한 순간 순간을 허비하며 산다. 시간을 물 쓰듯 흘려보내고 기회를 기회답지 않게 지나쳐 버린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등불삼아 늘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하셨다. 인생은 마음공부의 터전이니 찰나찰나 지켜보는 실천의 삶을 살라고 하셨다.

한 생각의 윤회바퀴를 잘 굴려야 한 생의 윤회바퀴도 진화를 향해 구른다.

불법을 생활화하는 것, 그것이 진화의 길이다.

협찬 : 제주지원